

연구보고 06-R15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A Study of the Lives of Sexual
Minority Youths

책임연구원 : 강병철 (삼육보건대학 보건사회복지과)

공동연구원 : 김지혜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청소년개발원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목적임.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청소년 성소수자의 개념
 - 둘째,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정체성 형성
 - 셋째, 청소년 성소수자의 드러내기
 - 넷째, 청소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관계
 - 다섯째,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소수자로서의 사회화
 - 여섯째,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과 사랑
 - 일곱째, 청소년 성소수자의 건강
 - 여덟째, 청소년 성소수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상담경험
 - 아홉째,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반동성에 폭력경험
 - 열째, 청소년 성소수자의 학교적응과 가출
-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임. 특히 접근이 매우 어려운 청소년 성소수자라는 연구 대상의 특성상 성소수자 단체들과 온라인 모임을 활용하였으며, 심층면접이라는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양적 연구에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함.

2. 주요 연구내용

-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함. 또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하

여 한국 청소년 성소수자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제시함.

● 청소년 성소수자의 실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성적체성 인지에 관해서 살펴보면, 청소년이 성적체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평균 연령은 13.8세로 나타나, 대부분 청소년 초기에 성적체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성적체성을 인지하게 된 계기는 주변 동성친구나 선생님을 좋아하였던 것이 가장 많았음.

둘째, 성적체성 수용에 대해 살펴보면, 청소년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고 있었고, 성적체성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성적체성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

셋째, 성적체성 드러내기에 대해 살펴보면, 부모나 교사를 비롯한 성인에게 성적체성을 알리는 일은 매우 적고 주로 친구들에게 자신의 성적체성을 밝히는 것으로 나타남. 커밍아웃을 한 이후의 반응은 친구의 경우는 대부분 수용적이거나 보통의 수준으로 반응하지만, 부모, 교사, 상담가 등은 절반 정도가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넷째,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성소수자 청소년의 70% 이상이 도움이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 형제, 친구 등으로부터의 전반적인 지지수준은 낮은 편임.

다섯째, 성소수자로서의 사회화에 대해 살펴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터넷을 통해서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접하게 되었고, 각종 동성애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음.

여섯째, 성과 사랑에 대해 살펴보면, 동성과의 교제경험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하는 경우가 있고, 성소수자 청소년 가운데 교제와 성관계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일곱째, 청소년 성소수자의 건강을 살펴보면, 청소년 가운데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은 47.4%이고, 에이즈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9.6%이었음. 음주률과 흡연률은 일반 중고등학생 집

단에 비해 높았음.

여덟째,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수준과 자살시도경험은 높게 나타남. 청소년들은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숨기고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소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아홉째, 반동성애 폭력경험에 관해 살펴보면, 놀림을 받거나 아웃팅을 당하고, 아웃팅 후 부당처우를 받은 경험이 매우 높게 나타남. 청소년의 대부분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며, 우리 사회 속에서 동성애자로서 살아가기 어려움을 표현함.

열째,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로 살펴본 학교적응수준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교사에 대한 존경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3. 정책제언

● 연구결과에 기반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첫째, 중고등학교에서 성정체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둘째, 청소년 성소수자를 알고 이해하도록 부모와 교사를 교육해야 함.

셋째, 청소년상담기관의 상담가가 청소년 성소수자를 상담할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을 제공해야 함.

넷째, 청소년이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공식 기관을 통하여 지식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함.

다섯째,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사회서비스기관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함.

여섯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향상을 위해 사회적 태도와 제도를 개선해야 함.

목 차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II. 이론적 배경	7
1. 청소년 성소수자의 개념	9
2.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적체성 형성	13
3. 청소년 성소수자의 드러내기	17
4. 청소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관계	21
5.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소수자로서의 사회화	23
6.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과 사랑	25
7. 청소년 성소수자의 건강	28
8. 청소년 성소수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상담경험	33
9.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반동성에 폭력경험	36
10. 청소년 성소수자의 학교적응과 가출	41
III.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자	45
1. 조사방법	47
2. 연구대상자	48
3. 조사내용	50
4. 연구의 제한	53
IV. 연구결과	55
1.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적체성 인지	57
2.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적체성 수용	59
3. 청소년 성소수자의 드러내기	63
4. 청소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관계	68
5.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소수자로서의 사회화	70
6.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과 사랑	73
7. 청소년 성소수자와 건강	76

8. 청소년 성소수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상담경험	79
9.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반동성애 폭력경험	83
10. 청소년 성소수자의 학교적응과 가출	87
 V. 성별에 따른 생활실태 분석	93
1. 남녀 청소년 동성애자의 일반적 특성	95
2. 남녀 청소년 동성애자의 생활실태 비교	96
 VI. 결론	103
1. 요약	105
2. 정책제언	108
3. 후속연구 제언	122
 참고문헌	124

표 목차

<표 2-1> 정체성이 발달하는 연령의 최빈치	13
<표 2-2> 동성애자 정체성 형성 단계	17
<표 2-3> 청소년 동성애자의 고립 경험	23
<표 2-4> 청소년(9-12학년)의 알콜과 약물 사용	32
<표 2-5>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직면한 정신문제	33
<표 2-6> 14-21세 청소년의 폭력 경험	39
<표 3-1> 설문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48
<표 3-2> 설문조사 참여자의 가족 특성	49
<표 3-3>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50
<표 4-1> 성정체성 인지	57
<표 4-2> 성정체성 수용	60
<표 4-3> 커밍아웃	64
<표 4-4> 사회적 지지	68
<표 4-5> 동성애자 커뮤니티	71
<표 4-6> 동성과의 교제	73
<표 4-7> 청소년 성소수자의 건강	77
<표 4-8> 자아존중감과 우울	79
<표 4-9> 자살위험성	80
<표 4-10> 상담서비스 이용경험	81
<표 4-11> 아웃팅과 놀림경험	83
<표 4-12> 반동성애 폭력피해 경험	84
<표 4-13>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 인식	86
<표 4-14> 학교성적	88
<표 4-15> 학교적응	89
<표 4-16> 가출	91
<표 5-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5
<표 5-2>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 인지계기	97
<표 5-3> 성별에 따른 커밍아웃	97

<표 5-4> 성별에 따른 동성애자 커뮤니티 접한 경로	98
<표 5-5> 성별에 따른 동성애자 친구 수	98
<표 5-6> 성별에 따른 콘돔사용	99
<표 5-7> 성별에 따른 에이즈검사 여부	99
<표 5-8>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100
<표 5-9> 성별에 따른 아웃팅 경험	101
<표 5-10> 성별에 따른 학교성적	101
<표 5-11>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	101

그림 목차

<그림 2-1> 일반적인 커밍아웃 패턴	19
<그림 2-2> 자녀의 커밍아웃에 대한 부모/가족의 반응	21
<그림 2-3> 동성애 정체성에 대한 스티그마와 편견 (동성애공포증)의 영향	40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은 공통점을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되곤 하지만,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다양한 존재이기도 하다. 청소년 성소수자(sexual minority youth)는 그러한 다양성의 일면을 드러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거의 만나본 적이 없으며 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성소수자 이슈는 많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성소수자(또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동성애는 연예계의 가십거리나 이상하고 특수한 소수의 사람들의 문제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존재하고 있으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더욱 많다. 장재홍 등(2003)의 연구에서 동성애 성향에 대해 고민한 청소년은 11.0%로 나타났고, 이영식 등(2005)의 연구에서 동성애 성향이 있는 청소년은 12.7%로 나타났다. 또한, 김정준 외(발간예정)의 연구에서 자신을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성소수자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9.4%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청소년 가운데 10% 정도는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성소수자는 인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 왔고 지금도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역사 속에서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와 같이 동성애가 인정되거나 찬양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하던 중세 이후로 점차 도덕적 비난과 강력한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동성애는 동성애를 행하는 개인차원의 문제였지 그것이 사회적인 담론이나 범주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동성애(homosexuality)라는 현상이 이성애(heterosexuality)와 대비되는 하나의 사회적 범주로 구성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였다(함인희,

2003). 19세기 말의 국민국가의 형성과 제국주의의 확장과 함께 국가는 국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아이를 낳거나 가족을 구성할 수 없는 동성애자들은 국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열등’하고 ‘위험’한 2등 국민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빅토리아 시대의 종교적 엄숙주의도 한 몫했는데, 동성애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고 스스로를 타락시키는 중대한 죄악을 행하는 것이었다.

20세기에 들어서서는 민족과 국가간 대립이 극에 달하는 가운데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해졌는데, 우수한 아리안 민족을 생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성애자를 핏박한 나치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 성소수자들의 인권운동도 시작되었다. 특히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시작은 그 전까지 뚜렷한 소수집단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부도덕성, 범죄, 병리 현상으로 인식되었던 동성애를 새롭게 규정하고 자신들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 문제가 공공의 담론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단체들이 생겨나면서부터이다. 최초의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인 ‘친구사이’와 ‘끼리끼리’, 그리고 대학 동성애자 단체들인 연세대의 ‘컴투게더’나 서울대의 ‘마음001(Qis의 전신)’, 고려대의 ‘사람과 사람’ 등이 만들어지면서 성소수자들은 사회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종로의 낙원동과 같은 몇몇 특정 지역에 음성적으로만 존재했던 동성애 커뮤니티와 문화가 인권운동의 시작과 함께 사회에 여러 가지 이슈를 던졌다. 그 후 한국의 동성애자 커뮤니티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지금까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애초에 없던 일’, ‘동성애 부재’라는 말로 지나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위한 단체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존재들이다.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연예인 몇 명이나 몇몇 동성애 인권활동가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 성소수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여전히

그들은 익명 속의 존재이며 부유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맞닿아 있다.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성담론은 이성애중심주의(heterosexism)에 기반해 동성애자들을 의학적 문제를 가진 존재로 만드는 동시에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을 일삼는 과잉성애화 집단으로 주변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즉 동성애적 관계나 가족의 존재를 부인하며 나아가 동성애를 정신병이나 에이즈와 동일시하여 병리적 집단으로 낙인화하는 경향이 있다(박민선, 1996).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이슈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년기를 정체성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시기로 보고 청소년의 동성애를 이성애적 정체성이라는 완전한 발달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의 일시적인 현상 같은 것으로 치부하고 무시해 버리거나, 동성애라는 잘못된 정체성을 이성애라는 올바른 정체성으로 고쳐주기 위해 노력한다(강병철, 하경희, 2005).

이런 성인들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청소년들은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동성애를 쉽게 접하게 되고 과거보다 훨씬 일찍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서 동성애에 대한 자신들만의 환상과 이미지를 키워 나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넷 동호회와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자료와 모임이 있고, 포르노나 야오이 만화와 같은 매체도 있다. 이러한 매체를 통해 현재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동성애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긍정적인 정보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보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 이런 매체들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왜곡되게 받아들인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특히 포르노나 야오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동성애에 대한 판타지를 극대화시킨 매체이기 때문에 이런 매체를 통해 동성애를 접한 청소년 중 일부는 동성애자를 더욱 혐오스럽게 보기도 하며, 사회적 낙인을 확대시킨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접했다라도 사이버 공간 밖의 실제 현실로 나가게 되면, 이성애중심의 주류적 가치관을 잘 알고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과 사회의 편견 속에서

갈등하게 된다. 즉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자신이 비정상적이고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좌절하거나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들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자아존중감이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아직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어려운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위기가 심각한 경우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의 자살요인 중 30% 정도가 동성에 때문이라는 보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Mallon, 1998).

그 외에도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우울증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많으며(Harrison, 2003; Elze, 2002; Curtis & Victor, 1994), 또한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폭력을 경험하기도 한다(Remafedi, 1987). 그러나 그런 문제를 가족에게도 잘 이야기할 수 없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폭력을 경험하기도 해서 미국의 경우 가출 청소년의 상당수가 청소년 성소수자이다.

이렇듯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해 연구된 바는 거의 없다.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그것을 발달시켜 나가며, 어떤 고민과 심리사회적 위기를 거치며, 어떻게 이성애중심적 사회에서 살아남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성소수자의 개념
2.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정체성 형성
3. 청소년 성소수자의 드러내기
4. 청소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관계
5.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소수자로서의
사회화
6.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과 사랑
7. 청소년 성소수자의 건강
8. 청소년 성소수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상담경험
9.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반동성애 폭력경험
10. 청소년 성소수자의 학교적응과 가출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성소수자의 개념

청소년 성소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수 성(minor sexuality)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소수 성에는 동성애(homosexuality), 양성애(bisexuality), 성전환(transsexuality; transgender), 간성(intersexuality; 間性; 남녀추니) 등이 있다. 즉, 동성애자는 같은 성(gender)과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양성애자는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사랑을 느낀다. 그렇다고 해서 양성애와 동시에 관계를 만든다기보다는 동성애도 사랑에 빠질 수 있고, 이성애도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성전환자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즉 그들은 자신이 갖고 태어난 생물학적 성에 만족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반대의 성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성전환 수술을 통해 본질적 성(gender)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성전환자들을 동성애자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성전환자 중에 이성애자가 있을 수도 있고 동성애자가 있을 수도 있다. 남녀추니는 한 사람이 남녀의 생식기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사회적 성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어린 시절 대부분 한쪽 성의 생식기를 제거하고 살아가게 되나 일부의 경우 양쪽 성기를 모두 가진 채 평생을 살아가기도 한다. 그 때 그가 어떤 생식기를 사용하며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렇듯 광의의 성소수자는 이성애에만 사랑을 느끼는 이성애자(heterosexual)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동성애자를 가리키는데, 동성애자가 성소수자 중 가장 많고 대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소수자는 주로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며,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제 동성애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oses & Hawkins(1982)는 동성애를 이해하려면 성적인 정체성에 대한 세 가지 구성 요소인 성정체성(sexual identity), 성역할(gender role), 그리고 성적 선호(sexual preference)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 요소는 상호독립적이라고 하였다(NASW, 1999에서 재인용). 성정체성은 성적 및 낭만적 맥락에서 자신을 동성애자, 이성애자 혹은 양성애자로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이 사랑과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성의 사람인지, 다른 성의 사람인지 혹은 양쪽 성 다인지를 자각하고,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¹⁾

성역할은 여성과 남성으로서 기대되는 역할행동의 태도를 말한다. 이성애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은 ‘여성적’, 즉 비공격적이고 감정적이며 타인 의존적이라고 기대되며 남성은 ‘남성적’, 즉 공격적이고 이성적이며 주도적이라고 기대된다. 성적 선호는 성과 애정의 관계에서 동성, 이성 혹은 양성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말한다. 동성애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유지하며 대개는 사회에서 기대되는 방식으로 성역할 행동을 하지만 성과 애정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과 같은 성에게 더 끌리는 성적 선호를 가진다.

1980년대 이후의 심리학 문헌에서는 성적 선호보다도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성적 선호의 용어가 개념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내포하고 있지만 성적 지향이란 자발적인 선택보다는 생물학적인 면에서 사랑과 성욕의 표현이나 관심을 내포하고 있다. 즉 성적 지향은 특별한 성별의 상대에게 성적, 감정적, 그리고 애정적으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종합하면, 동성애란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바탕으로 한 성정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과 성별이 동일한 상대에게 성적 지향을 가지는 것이다(윤가현, 1997). 따라서, 단순히 동성끼리 성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를 동성애자라고 부를 수 없으며, 생물학적으로는 동성끼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 중 한 명이 자신을 이성으로 생각하는 성전환자라면 그 관계는 동성애가 아닌 이성애라고 볼 수 있다.

1) “성정체성”, 성적소수자사전, http://ksarc.org/bbs/zboard.php?id=press_dictionary

호모섹슈얼(homosexual)이란 단어가 만들어진 것은 1869년 Karl Maria Benkert가 프러시아의 반(反)동성애법 철폐를 주장했던 팸플릿에서 처음 사용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즉, ‘같다(homo)’란 의미의 그리스어 단어와 ‘성(sex)’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를 조합한 것이다(Marcus, 2000). Benkert는 동성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의미의 호모지닉(homogenic)이나 동성에게 사랑에 빠진다는 의미의 호모필릭(homophil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생식기 중심의 호모섹슈얼(homosexual)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동성애를 단순히 성기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었다. 즉 동성애자들은 동성간에서는 성관계가 가능하나, 이성간에서는 성관계가 힘들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윤가현, 1997). 그 후 동성애는 그것을 범죄로 보던 시각에서는 많이 벗어났으나 성도착, 즉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1940년대까지 동성애는 편집증이나 성격장애 등의 영역에서만 논의되었다(김은경, 2002). 특히, 1952년 DSM이 출간되며 동성애는 사회병리적 성격장애의 범주 안의 성적 이탈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1974년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동성애를 진단명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더 이상 동성애는 정신장애로 분류되지 않게 되었다.

한편, 1960년대 후반 동성애자들은 병명처럼 들리는 호모섹슈얼이라는 단어 대신 게이(gay)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게이라는 말은 ‘즐겁다’라는 뜻으로 1920년대 한 동성애자가 자신들을 위한 잡지를 만들면서 “미국에서 가장 즐거운 잡지(America's Gayest Magazine)”이라는 표지 문구를 단 데서 유래되었다(Marcus, 2000). 그런데 오늘날 게이라는 말은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킬 때 더 많이 사용되므로, 여성동성애자들은 스스로를 레즈비언(lesbian)이라고 부르기를 선호한다. 이 말은 레스보스(Lesbos)라는 그리스 섬에서 비롯되었는데, 그곳은 기원전 6세기경 여성간의 사랑을 예찬한 시인으로 유명한 사포(Sappho)가 학교를 세운 곳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동성애자를 지칭하게 되었다(Marcus, 2000).

최근에 많은 동성애자들은 스스로를 퀴어(queer)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원래 퀴어라는 단어의 뜻은 ‘이상한, 괴상한’이라는 의미로 동성애자를 비하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그 용어를 재명명하여 긍정적

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즉, 그들은 그 단어에서 해방감을 찾으며, 모든 성적 소수자를 위한 자긍심, 수용성, 그리고 공동체의 단어로 사용하게 되었다(Marcus, 2000). 한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이반'이라고 부른다. 단어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으나, 대략 1960-70년대 종로의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일반(一般)이라는 말에 반하여 자신들을 이반(異般 또는 二般으로 추정됨)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시작된다. 1990년대 중반, 한국에서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시작될 당시, 동성애자 인권운동가들은 비하적인 의미를 가진 '동성연애자'라는 말을 대체하는 말로 이반이라는 단어를 알리기 시작하였다.²⁾

동성애라는 현상은 어느 시대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해 왔다. 그렇지만, 오늘날과 같은 정체성의 범주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동성애자들은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사회에서 비가시적이다. 따라서 한 사회에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나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10%라는 설인데, 그것은 인간 성연구로 유명한 Alfred Kinsey에 기원한다. 즉, Kinsey가 만든 동성애-이성애 척도에서 5번이나 6번에 응답한 남성 비율이 약 10%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16세에서 55세 사이에 적어도 3년 이상 동성과 관계를 유지해온 남성들이었다(Kinsey, 1948; 윤가현, 1997에서 재인용). 그 후 그의 표집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치가 과장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후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한 사회에 동성애자의 수는 2-10%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은 대부분 사춘기를 전후하여 인식되므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수 역시 그 정도의 비율이 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가정환경에서 다양한 종교를 믿으며, 다양한 교육과 사회화를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다.

2) “이반”, 성적소수자사전, http://ksccr.org/bbs/zboard.php?id=press_dictionary

2. 청소년 성소수자의 정체체성 형성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은 욕구를 가진다. 흔히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혼돈이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보편적으로 사춘기 시절에 가장 두드러진다. 청소년들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대부분 학생, 부모의 자녀, 시민, 사회인, 미래의 주역 등으로 자신의 모습을 하나씩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정체성(identity)의 발달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정체성의 발달 중 하나가 성적체성(sexual identity)의 발달이다.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이해하고, 이러한 인식을 개인 및 사회적 정체성으로 통합시키는 발달과정을 동성애적 정체성 형성(Homosexual Identity Formation)이라 부른다.

성인 게이 및 레즈비언의 고백에 따르면 그들의 동성애 환기(각성, sexual arousal) 내지, 동성애에 입각한 성적 환상 그리고 동성애에 입각한 낭만적 몰입(romantic attachments)은 대체로 사춘기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초기 아동기 때부터 자신이 남들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표현한다(Savin-Williams & Lenhart, 1990; Sturdevant & Remafedi, 1992). 게이와 레즈비언의 경우는 평균 12-14살 때부터, 레즈비언의 경우는 약 14-16살 때부터 동성애를 향한 성적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Saghir & Robins, 1973; 함인희, 2003에서 재인용). 그 외에도 윤가현(1997)은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여, 동성애자들의 정체성 발달과 관련된 현상의 연령을 정리하였는데, 그것은 <표 2-1>과 같다.

<표 2-1> 정체성이 발달하는 연령의 최빈치

(단위: 세)

정체성 발달의 내용	레즈비언	게이 남성
동성에게 애착의 감정을 인식하는 최초의 시기	14-16	12-14
동성과의 성행동을 최초로 경험하는 시기	20-22	14-15
레즈비언이나 게이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시기	21-23	19-21
동성과 성교 행위를 경험하는 시기	20-24	21-24
게이로서 긍정적 정체성을 가지는 시기	24-29	22-26
이성애자 친구에게 드러내는 시기	28	25
부모에게 드러내는 시기	30	28

* 자료: 윤가현(1997)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성애자의 정체성 형성은 대부분 청소년 시기에 완성된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시기는 20대 중반이후로 나타났다. 그것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혼란과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나이가 들고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자신들의 ‘다른 본성’을 사회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낙인을 다루기 위해 매우 복잡한 과업들과 싸워야 한다.

이성애자 친구들과 달리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지지적이거나 모델이 되는 부모나 가족을 찾기도 힘들다. 흑인 청소년과 같이 인종이나 민족적 특성으로 인해 차별과 낙인을 받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나 가족, 동족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은 더 큰 사회에서의 적대적 태도나 모멸감 등에 대해 완충장치가 되는데 반해, 동성애자 청소년들은 그런 지지체계가 없다. 그래서 여러 문화권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동성애에 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성의 표현을 제한하는 문화권일수록 동성애자들의 정체성 억압이 심하며, 그 결과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아차리는 연령도 더 높다고 하였다(Ross, 1989).

청소년 동성애자의 정체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성행동과 낙인화된 정체성에 대한 대처기제, 청소년 동성애자 정체성 발달의 과정을 알아야 한다. 동성간의 성적 행동은 성인보다 청소년 사이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지만 자신을 동성애자로 보는 청소년은 별로 없다(Savin-Williams & Lenhart, 1990). 그것은 그들이 거부와 차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성적 지향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1,06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의 청소년이 동성애적 행동을 했지만 단지 1%만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응답했다(Savin-Williams, 1990). 미국 미네소타 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는 88% 정도가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했으며, 1%는 양성애자 또는 동성애자라고 했고, 10% 이상의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Remafedi et al., 1992).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줄어들어서, 그들 중 25.9%는 12세

였던 반면, 18세는 5%에 불과했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좀더 자신의 동성애적 정체성, 이끌림, 행동에 대해 더 많이 응답했다.

청소년기는 실험과 탐험의 시기이다. 따라서 현재의 성행동이 현재나 미래의 성적 지향을 나타낸다고 볼 필요는 없다(Savin-Williams & Lenhart, 1990). 청소년 시기에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겪는 혼란은 드문 일이 아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동성과 어떤 성적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성애적 행동과 동성애적 지향을 구별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즉, 많은 동성애자 청소년들은 아무런 성경험이 없거나 이성과 성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동성과 성경험이 있는 이성애자 청소년도 있을 수 있다.

정체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성숙도와 경험, 신뢰할만한 정보에의 접근가능성, 지지적 성인 역할모델의 존재 여부, 또래 사이의 이해도 등이다. 그래서 어떤 청소년들은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만, 나머지는 성인 초기나 그 이후까지도 확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보화의 발달과 도시지역의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발달, 서비스 조직 등의 증가로 점점 더 많은 동성애자들이 보다 어린 나이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Ryan & Futterman, 1998).

동성애적 정체성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발달모델은 개인적인 변화를 통하여 적응단계의 진행과정을 제시해 준다(Cass, 1979; Coleman, 1982; Troiden, 1988, 1989). 특히 Troiden(1989)은 이 전의 발달모델들로부터 동성애적 정체성 형성과정을 낙인의 인식과 내재화를 극복하며 자아통합을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 보며 4단계의 발달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Troiden은 사춘기를 전후하여 동성애자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발달단계를 살핌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의 정체성 형성에 다른 모델들보다 더욱 적합하다.

제 1단계는 민감화(Sensitization) 단계로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성적 관심이 다른 것을 느끼고 인식하는 단계이다. 아동기에는 일반적으로 아이가 오직 이성애적 모델에만 노출되어 성장하지만, 늦어도 청소년 후기나 성인 초기까지는 자신의 성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시기를 겪게 된다. 그래서 사춘기

에 접어들면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이성과의 교제에서 욕구좌절을 경험하거나 어색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다. 비슷하게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불만을 느끼고, 이성의 복장이나 행동을 할 때 더욱 편안해하며, 스스로를 ‘남성의 몸에 갇힌 여성, 여성의 몸에 갇힌 남성’으로 인식한다.

제 2단계는 정체감 혼란(Identity confusion)단계로 이전의 이성애적 정체감을 동성애적인 것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혼란은 자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동성애적 경험, 동성애에 대한 낙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특히 Troiden은 이 단계에서 많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고립과 혼란을 경험하며 자살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보았다.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감정을 가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리적으로 더 번민하게 된다(윤가현, 1997).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적 감정을 지니고 있는 자신이 과연 옳은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거부하지 않을까 등으로 고민한다. 그래서 동성에게 매력을 느낀 청소년들은 부모나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 만연된 동성애혐오증(homophobia) 때문에 스스로를 이성애적 틀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간다. 따라서 그들은 심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생활을 과도기라고 해석하거나, 애써 이성과 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하거나, 사회교제를 줄여 컴퓨터나 미술, 음악 등에 심취해 보려고 노력한다(Masters, Johnson & Kolodny, 1994).

제 3단계는 정체감 가정(Identity Assumption)단계로 동성애적 정체감이 자신에 대한 통합된 정의가 되어가며 그것이 종종 타인-흔히 다른 동성애자에게도 드러나는 단계이다. 이 시기가 되면 자신의 성적 지향이 동성에게 향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며, 그것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찾기도 한다.

마지막 단계는 몰입(commitment)단계로서 동성애적 정체감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는 흔히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자신의 정체감을 드러내면서 점차로 사회적인 정체감으로서도 통합해 간다. 이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동성애자 정체성 형성 단계

1단계 : 민감화	사춘기 이전에, 아이들은 중성적(gender-neutral)이거나 특정 성역할을 따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자신이 친구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12세 이전에 자신을 성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아이는 거의 없다.
2단계 : 정체성 혼란	사춘기 이후 청소년들은 점차 동성을 향한 생각과 감정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인지적 부조화와 혼란으로 이끌고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다. 동성애에 대한 정보부족과 긍정적 역할 모델이 없어서 고립과 혼란은 더욱 증가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대처행동을 발달시키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거나 자신이 양성애자라고 생각한다.
3단계 : 정체성 가정	청소년 후기나 성인 초기가 되면, 청소년들은 자기정체성을 만들고 다른 동성애자에게 커밍아웃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동성애자 친구들을 사귀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긍정적 경험을 하고, 부정적 고정관념을 없앤다.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사회화와 관계를 발달시키고 긍정적 역할 모델을 찾는다. 그리고 스티그마가 있는 정체성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배운다.
4단계 : 몰입	보통 성인이 되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성정체성을 통합해 자기수용이 최고조에 이른다. 그래서 성정체성을 이성애자 친구와 가까운 가족에게도 알린다. 그러나 모든 동성애자들이 정체성을 통합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지체계, 긍정적 역할모델, 강점과 약점, 차별 경험 등에 달려있다.

* 자료 : Troiden(1989)

3. 청소년 성소수자의 드러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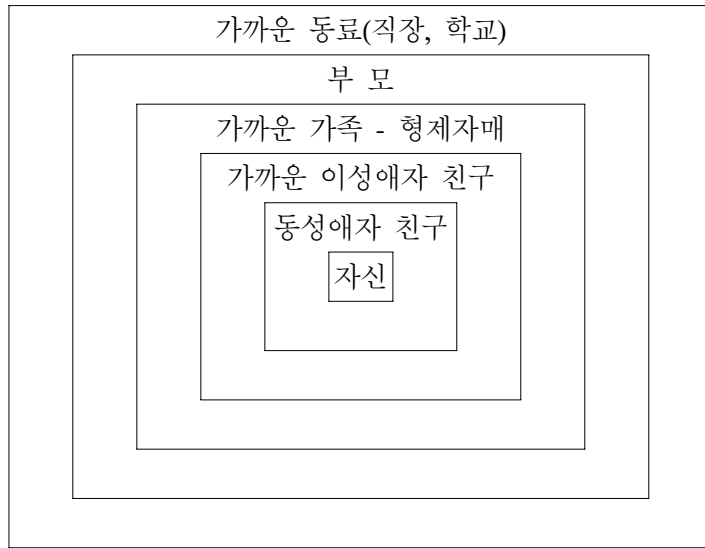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는 첫 단계는 자신의 내부에서 스스로 성소수자임을 인정하는 일이다. 그것을 커밍아웃(coming out; 드러내기)이라고 하는데, 커밍아웃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삶에 통합시키는 상호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 말은 ‘벽장에서 나오기(coming out of the closet)’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벽장’은 동성애자들이 자

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는 장소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따라서 커밍아웃의 근본적인 의미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과,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것을 의미한다(Marcus, 2000). 이는 현시대의 사회적 맥락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자아를 형성시키는 동안 표출되는, 하나의 통과의례에 해당된다(Garnets, & Kimmel, 1993).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는 커밍아웃을 언제,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이다(Ryan & Futterman, 1998). 만약 이 과정을 신중하게 하지 않는다면 많은 부정적인 경험에 직면하게 된다. 즉,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가족에게 커밍아웃하거나 우연히 밝혀진 이후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많다(Farrow, Deisher & Brown, 1991; Hetrick & Martin, 1987; Martin & Hetrick, 1988). 따라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는데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부모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재정적, 정서적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커밍아웃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족간에 의사소통을 늘이고 친밀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부모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커밍아웃을 하는 것은 오히려 거부와 비난,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부모에게 커밍아웃을 하려고 하는 청소년은 자신이 왜 그렇게 하려는지를 진지하게 숙고해 봐야 한다. 또한 동성애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는 부모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충격과 무기력, 죄책감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특성에도 불구하고, 커밍아웃은 정체성 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커밍아웃의 과정은 <그림 2-1>과 같이 진행된다.



<그림 2-1> 일반적인 커밍아웃 패턴

* 자료: Ryan & Futterman(1998)

자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할 때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위협적이지 않은 대상으로부터 시작한다. 즉 대부분의 경우 친구를 정서적 지지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보다 친구에게 먼저 커밍아웃을 한다. 물론 가장 안전한 동성애자 친구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안전감을 얻고 나면, 또는 동성애자 친구가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이성애자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한다. 그 후에는 자신과 친한 형제자매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그것도 받아들여지면 부모에게도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안전감을 느끼면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의 가까운 동료에게도 커밍아웃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거부나 일어나면 커밍아웃이 중단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 과정과 다르게 커밍아웃이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이 과정은 빠른 시일 내에 끝나기도 하지만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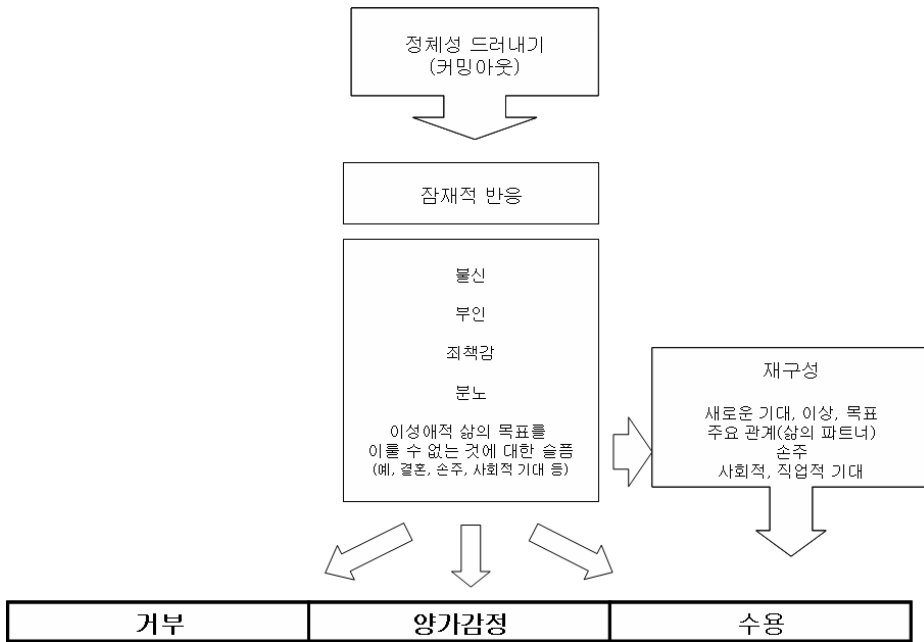
성인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말하기 전 보통 4년 반 정도를 기다린다고 한다. 그러나 보통 커밍아웃의 첫 대상이 가족이나 직장동료가 되지는 않는다.

지역에 따라 23-40%는 가족에게, 37-59%는 직장동료에게 커밍아웃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Herek, 1991). 그리고 보통 부모보다 친한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성원에게 먼저 커밍아웃을 하며, 부모에게는 절대로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동성애자들도 많다.

커밍아웃의 과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동성애자들은 커밍아웃을 하려고 할까? 수많은 성소수자들은 게이 정체성을 드러내기 전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여기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적 감정이나 생각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혼란을 경험했으며, 자신의 실제 성적 본질과 허구 사이에서 방황하다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다(윤가현, 1997).

친구나 가족, 동료들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근본적으로 동성애자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고 싶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솔직해지고 싶기 때문에 커밍아웃을 한다. 또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친구와 가족, 그리고 동료들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히게 된다(Marcus, 2000).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는 그 개인의 인생에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명명하고, 그 명칭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성적 지향을 노출시키고,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감정은 심리적 적응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동성애자로서 긍정적 정체성을 지닌다는 것은 신경증 및 사회적 불안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자아 존중감이 높거나, 우울증상이 낮은 것 등과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인다(Garnets & Kimmel, 1993; Rothblum, 1994). 특히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 동성애자들에게 있어 커밍아웃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관심과 청소년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림 2-2>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했을 때 부모와 가족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 자녀의 커밍아웃에 대한 부모/가족의 반응

* 자료: Ryan & Futterman(1998)

4. 청소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관계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원동력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만일 어떤 청소년 성소수자가 커밍아웃을 한 후 가족과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큰 시련이 되며, 어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 성소수자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가족과 친구들이 계속해서 지지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때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커밍아웃을 해도 친구들이 여전히 자신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고 커밍아웃을 하지만, 그 후 친구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한

연구에서, 거의 모든(93%) 남자 동성애자 청소년(15-19세)들이 어떤 문제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친구가 가장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그 중 41%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이후 친구를 잃었다고 응답했다(Remafedi, 1987). 미국의 14개 도시에 대한 연구에서는, 거의 3/4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가장 먼저 친구에게 밝혔고, 거의 반(46%) 정도가 그 후 친구를 잃었다고 응답했다(D'Augelli & Hershberger, 1993). 친구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에게 있어 정서적 지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친구를 잃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특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된다.

가족 역시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직 가족으로부터 정서적·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시기이므로 가족의 반응은 이들의 안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많은 경우 가족은 청소년 성소수자가 커밍아웃을 하면 충격을 받으며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격렬한 반응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차츰 안정의 시기가 오는데 이 후의 모습은 가족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Ryan & Futterman, 1998).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부정하기도 하고, 치료를 통해 변화되기를 희망하거나 막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슬퍼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기도 하고, 소수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기도 한다.

따라서, 커밍아웃 후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지게 된다. 또한, 삶의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게 될 수도 있다. 커밍아웃을 하지 않고 혼자 숨어지낸다고 해도 역시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런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은 자살행동의 주요 요인이다(Savin-Williams, 1990).

많은 연구들에서 동성애자 청소년들이 이성애자 청소년들보다 훨씬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D'Augelli, 1996). 특히 자살시도는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채 숨어 있는(closeted) 청소년들과 이제 막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깨달아서 고립감이 극도로 높은 시기에 가장 빈발하는데(Remafedi, Farrow & Deisher, 1991; Schneider, Farberow & Kruks, 1989), 이 시기에 가족

과 친구, 학교 등의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자신의 성적체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을 때 고립되지 않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이다. <표 2-3>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고립경험에 대해 보여준다.

<표 2-3> 청소년 동성애자의 고립 경험

사회적 고립	- 모든 사회적 상황(가족, 친구, 학교, 교회 등)에서 외로움을 느낌 - 말 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고 느낌 -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계속 숨겨야 하는 어려움
정서적 고립	- 늘 경계해야 하고, 따라서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 -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들과 정서적으로 분리된다는 느낌 - 동성친구와의 우정이 오해받거나 비밀을 누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인지적 고립	-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 - 다른 동성애자들의 정형화된 생활방식과 같은 유추된 정보들

* 자료: Martin & Hetrick(1987)

5.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소수자로서의 사회화

서구의 경우 최근 동성애자에 지지적인(pro-gay)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성의 증가는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자아긍정과 사회화의 경험, 그리고 긍정적 역할모델을 청소년 동성애자들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이전 세대의 동성애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직업적 삶과 정서적 삶을 분리시켜야 했던 것에 반해 오늘날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이전보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자신을 레즈비언이나 게이로 규정하는 것은 또한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사회적 압력을 받으며, 따라서 비판적이지 않고 자신을 잘 인도해줄 수 있는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D'Augelli, 1996).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한 성소수자들은 정체성을 드러내기 전보다 공동체 내에서 훨씬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과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Garnets & Kimmel, 1993).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인정하고 긍지를 느끼는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동안 저하되었던 자아 존중감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또 자신을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안전한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다(Berzon, 1992). 즉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있어 자신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자신의 주변에 존재하는 사회적 지지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지지체계가 존재한다면 좀더 쉽게 적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보통 공동체에 참여하여 성소수자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을 커밍 인(coming i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결과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달라진다(윤가현, 1997). 따라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같은 지지체계의 존재는 성소수자 개인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전략, 긍정적 안정감, 심리적 적응 등과 관련된다(Garnets & Kimmel, 1993). 반대로 동성애를 혐오하는 환경에서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므로 고립되고,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인 소외와 거부, 스티그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큰 편이다. 이들에게는 가족이나 친구, 파트너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근원이 된다(윤가현, 1997).

이런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동성애자들은 대학 모임, 동창회, 댄스 모임에서부터 원예 모임, 컴퓨터 매니아 모임, 고적대 모임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모임이 있다. 1999년 뉴욕의 경우 168개의 동성애자 단체들이 등록되어 있었다(Marcus, 2000). 우리나라 역시 1994년 최초의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설립된 이후, 1995년 연세대와 서울대에 최초의 대학모임이 생기고, 그 이후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수많은 동성애자 모임들이 생겨났다. 이 가운데는 청소년들을 위한 모임도 많이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서로 지지와 정보를 제공하며,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청소년 동성

애자들의 모임과 성인 동성애자들의 모임은 매우 분리되어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성인 동성애자들로부터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성인 동성애자들은 청소년보호법이나 아동학대로 오인받는 것 등을 우려해 청소년 동성애자들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두려움은 현실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인들의 역할모델이 결핍된 상태의 청소년들은 술집이나 공원, 대합실 등 공공장소에 자주 들린다. 그러한 곳을 찾는 청소년들은 술 취한 게이 등을 만나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용당하게 된다(Gonsiorek, 1988).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공원이나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게이바(gay bar; 동성애자 전용 술집) 등이 있다. 하지만 그 곳에서 청소년들이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등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의 태도 뿐 아니라 청소년 동성애자 당사자가 어떤 동성애자 친구와 모임, 커뮤니티를 접하고,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된다.

6.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과 사랑

동성애라는 정체성 자체가 성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동성애자들 역시 성과 사랑을 한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무성적인 존재(asexual)로 보았지만, 이성애자 청소년이든 동성애자 청소년이든 청소년들은 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성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성행위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동성의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눈을 뜨게 된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특히 한

국적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갖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 미네소타 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과반수(52%)의 학생들이 어떤 이성애적 행동을 했다고 응답했으나, 반대로 1%의 학생만이 동성애적 행동을 했다고 응답했다(Remafedi et al., 1992). 그러나 동성애적 행동을 한 학생들은 이성애적 행동을 한 학생들보다 더욱 활발한 성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기에는 동성간의 성적인 접촉은 빈번하지 않은 편이다. 흔히 청소년들은 동성과 성관계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반대로 이성과의 성관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거나 별로 관심이 생기지 않을 경우, 자신이 혹시 동성애자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청소년기는 성경험이 많지 않으므로 실제 동성애자인 청소년들도 동성간의 접촉을 전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이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발달과정에서 동성애 접촉을 시도하거나 동성애적 환상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나중에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윤가현, 1997).

그렇지만, 소수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경험을 하기도 하고 성매매와 같은 성적 일탈에 빠지기도 한다. 어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가정이나 학교 모두에서 고립되고 힘든 시간을 갖게 될 때 학교에서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로해 주는 낯선 게이 성인을 만나 성적으로 접촉해 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 또 그들이 게이 바(gay bar)를 찾아간다면 젊은 남성을 성적인 상대로 찾아나서는 성인들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윤가현, 1997).

때로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원조교제를 하는 청소년들처럼 집이 가난하거나, 가출했기 때문에, 아니면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한다. 특히 부모와의 갈등이 커져 가출한 이후 생계수단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Savin-Williams, 1994; Singer & Deschamps, 1994). 인터넷의 발달과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이런 일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동성과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청소년 동

성애자라고 보기는 힘들지만—이성애자 청소년 가운데서 돈을 벌기 위해 동성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많다—이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동성애자들은 주로 게이바나 인터넷에서 애인을 만나게 된다. 과거에는 극장이나 공원, 사우나, 화장실 등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지만(윤가현, 1997), 최근 들어 통신기술의 발달과 동성애자 인권의 향상과 함께 많은 동성애자들이 좀더 밝고 공개적인 장소를 선호하게 되었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인터넷을 가장 선호한다. 게이바를 가는 것이 연령적인 측면이나 재정적인 측면 모두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근가능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나 인터넷 동호회 모임을 통해 친구와 애인을 만들어 간다.

동성애자의 사랑은 이성애자의 사랑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성애자 커플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 커플도 만남에서 겪는 상처, 실망, 아픔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오는 기쁨, 흥분, 도전, 그리고 행복을 얻는다(Marcus, 2000). 그리고 청소년 동성애자 역시 그렇다. 그들 역시 만나고 데이트하고 사랑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아파한다.

한편 사회화의 과정에서 생긴 남녀간의 차이는 동성애자 사이에서도 나타난다고 보는 연구자들도 많다. 즉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으로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성은 여성보다 성적 실험에 대해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성과 사랑을 분리시키며, 정서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채 가벼운 섹스(casual sex)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의 경우에도 첫 번째 성적 대상자나 섹스에 대한 관심, 커플관계의 개방성, 관계의 지속성, 성적 파트너의 수, 성행동의 빈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았다(Blumstein & Schwartz, 1993; Eldridge, 1987; Gagnon & Simon, 1973; Nichols, 1989; Peplau, 1981; Saghir, Robins & Walbran, 1969; 윤가현, 1997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것은 개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청소년 동성애자들 역시 성과 사랑의 상대를 자주 바꾸는 경우도 있고, 한 명과 지속적인 관계는 맺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자신들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며, 자신들의 관계가 주위로부터 커플로서 인정받고 축하받기를 원한다.

7. 청소년 성소수자의 건강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일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건강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문제는 바로 에이즈이다. HIV/AIDS는 1980년에 발견된 이래,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되었다. 2003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500만의 신규 에이즈 감염인이 발생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인은 2001년에 3,500만 명에서 3,80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UNAIDS, 2004). 그 중 청소년은 에이즈에 매우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이다. 매일 15-24세 청소년 중 약 6,000명 정도가 감염되고 있으며, 새롭게 발생하는 에이즈 감염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4세 이하 청소년 감염인의 수는 2001년에 1,180만 명으로 추정된다(UNAIDS/UNICEF, 2002). 그래서 1988년에 에이즈는 미국 15-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6번째가 되었다(Novello, 1988).

우리나라의 경우도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 3월 현재 국내 누적 감염인수는 4,021명이며 이중 748명은 이미 사망하여 3,273명의 감염인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6년 3월말 감염경로가 확인된 3,403명 중 3,350명(98.4%)이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이성간 성접촉으로 인한 경우는 2,040명(59.9%), 동성간 성접촉으로 인한 경우는 1,310명(38.5%)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누적감염인 4,021명 중 남자가 90.8%로 여자 9.2%보다 9.9배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성활동이 왕성한 20-40대가 대부분이다(질병관리본부, 2006년 3월).

성인의 경우와 같이, 청소년 사이에서의 에이즈 감염도 지난 10년 동안 급속도로 늘어났다. 미국의 경우 80년대에는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의 중간 연령(median age)이 30세였는데, 91년에는 25세로 떨어졌고, 신규 감염자 중 25%는 22세 이하였다(Rosenberg, Biggar & Goedert, 1994). 우리나라 역시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15-24세의 신규 에이즈 감염인 수가 2000년 21명, 2001년 32명, 2002년 31명, 2003년 5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에이즈 감염인 중 24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이다(손애리, 2004). 그러나 청소년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과소 보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감염인은 이보다 더욱 많을 것이다.

젊은 동성애자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들 사이의 높은 감염률을 보여준다. 미국의 성병 전문 의료기관에서 발간되는 자료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젊은 동성애자 중 30%가 에이즈에 감염되었다(Wendall et al., 1992). 또한 미국 MACS(Multi-center AIDS Cohort Study) 자료에 의하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20세의 남성 중 1/5은 25세가 되기 전 HIV/AIDS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Coates, Faigle & Stall, 1995). 또한 남성과 성관계하는 젊은 남성은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이 일반 인구보다 7배나 높다고 하였다(Office of National AIDS Policy, 1996). 미국의 경우 비록 성인 동성애자 사이에서는 위험한 성행동이 줄어들고 있지만, 청소년 사이에서는 에이즈의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Coates, Faigle & Stall, 1995; Office of National AIDS Policy, 1996).

레즈비언에 대한 에이즈 감염률에 대한 자료는 별로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의 한 연구는, 아이를 기르는 여성은 0.2%, 일반 여성은 0.4%인데 비해, 레즈비언이나 양성애자 여성에서의 에이즈 감염률은 1.2%로 나타났다(Lemp et al., 1995). 즉, 남성과도 성관계를 갖거나 주사바늘을 공유한다면 감염위험은 높아진다. 그러나 여성간 성접촉의 결과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Kennedy et al., 1995).

우리나라의 경우도 15-24세 청소년의 에이즈 주요 감염경로는 성접촉이다. 남성의 경우 이성간 성접촉(40.6%), 동성간 성접촉(43.5%), 역학조사중(13.0%), 무응답(2.2%), 수혈(0.7%) 등으로 감염이 되며, 여성은 대부분 이성간 성접촉(89.3%), 무응답(3.6%), 역학조사중(7.1%)의 경로로 감염이 된다. 즉, 남성은 동성간 성접촉이, 여성은 이성간 성접촉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손애리, 2004).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에이즈를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감염 경로나 예방법에 대한 지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영, 2004; 손애

리 외, 2003; 한국에이즈퇴치연맹, 2003; 김성아, 2000). 이것은 다시 동성애자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이어진다(한국에이즈퇴치연맹, 2003). 즉,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없어져야 할 죄악이나 범죄, 질병 덩어리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성적체성과 성행동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동성과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동성애자인 것은 아니며, 반대로 동성애자라고 해서 모두 동성과 성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다. 젊은 남성의 17-33%가 동성과 성행위를 통해 오르가즘을 느꼈다고 응답했지만(Remafedi, 1988), 나중에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규정하는 경우는 훨씬 적다. 또한 청소년 에이즈 클리닉에서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청소년 10명 9명은 동성간 성행위를 했다고 응답했지만, 그 중 54% 정도만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했다(Futtermann et al., 1990). 반대로 청소년 동성애자 가운데서는 이성애적 성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 레즈비언 5명 중 4명은 과거에 남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게이 청소년 중 반 이상(56%)이 과거에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Rosario et al., 1994).

청소년기는 일생 중 성적으로 가장 활발한 시기이지만,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낙인적 신분과 비가시성(invisibility)으로 인해 에이즈에 더욱 취약하다. 커밍아웃의 과정은 매우 스트레스가 심한 사건이어서, 지지체계가 없다면 에이즈 감염 위험을 높이는 위험하고 부정적인 대처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청소년 동성애자라는 지속적 스트레스 상황은 우울, 자아존중감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쳐 에이즈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Kaplan, 1985). 거부와 조롱, 반동성애 폭력을 피하기 위해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더욱 숨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사회적 고립을 증가시킨다. 이런 사회화의 부족은 자신과 같은 동성애자 친구나 성인을 찾게 만들고 이것은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게 만든다. 미국의 경우, 동성애자 사회에서 에이즈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어차피 자신도 걸릴 것이므로 예방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Ryan & Futtermann, 1998).

미국의 경우, 게이 커뮤니티의 높은 에이즈 감염률로 인해 적극적 교육과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동성간 성접촉을 하는 남성의 에이즈 감염률은 덴버의 경우 28%, 마이애미는 31%, 달라스와 휴스턴은 27%, 뉴욕은 30%, 샌프란시스코는 41%로 나타났다(Coates, Faigle & Stall, 1995). 그러나 한국의 경우, 최근 들어 계속해서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HIV/AIDS에 감염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일반인 뿐 아니라 동성애자 사회 내에서도 아직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것은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unprotected sex)를 할 가능성을 높인다.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성관계(safe sex)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콘돔 사용율은 그리 높지 않다.

손애리, 한희정(2002)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첫 성경험시 콘돔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성경험자 중 남학생은 12.5%, 여학생은 10.6%만이 콘돔을 사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2003)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콘돔사용율은 35.6% 정도이며, 미혼자 중 콘돔을 매번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8.6%로 나타났다. 손애리(2004)의 연구에서는, 전국의 19-30세 미혼 성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콘돔사용율은 남성은 17.8%, 여성은 14.8%만이 콘돔을 항상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강희선(2001)의 전국 대학생 대상 조사에서도 성경험 대학생 4명중 1명만이 항상 콘돔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부분이 콘돔 사용에 대한 인식이 낮고 콘돔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이런 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들 역시 일반인들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유추된다.

음주와 흡연 역시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미국의 경우, 15-24세 청소년의 교통사고 사망의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 때문이며, 매년 이 시기 청소년의 자살과 살인의 40% 정도가 음주와 관련되어 있다(MacKenzie & Kipke, 1992). 흡연 역시 매우 위험한 것으로,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중 절반은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것이다(CDC, 1995). 특히 이런

음주와 흡연, 그리고 다른 약물의 사용은 에이즈를 비롯한 다른 성병 감염의 위험도 높인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음주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고, 그런 상태에서 콘돔사용 등 안전한 성관계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60년대 이래 미국에서 알콜과 약물 사용은 청소년들 사이의 유행이 되었다(표 2-4 참조)

<표 2-4> 청소년(9-12학년)의 알콜과 약물 사용

약물	사용 경험 비율	과거 한 달간	현재 사용	과음 경험
알콜	80.9%	48%	-	30%
담배	69.5%	30.5%	24.7%	
마리화나	32.8%	17.7%	14.1%	
코카인	4.9%	1.9%	2.2%	
크랙(Crack)	2.6%	-	-	
스테로이드	2.2%	-	-	
마약 주사	1.4%	-	-	

* 자료: Centers for Disease Control(1995)

우리나라 역시 청소년위원회(2006)의 조사에 의하면, 중고생 가운데 음주율이 36.6%, 흡연률이 8.6%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약물 사용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는 힘들다. 초기 연구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알콜 등 약물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우 적은 표본 수에, 여성은 거의 없고, 주로 술집에서 표집하는 등 표본의 문제가 있었다(Cabaj, 1989). 좀더 최근의 연구는 동성애자들이 보통 정도의 음주자(moderate drinker)는 이성애자보다 2배 정도 많고, 과음자(heavy drinker)는 이성애자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McKirnan & Peterson, 1989). 청소년 동성애자의 약물 사용 문제로 들어가면, 도시에 사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더 높은 음주율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연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더 높은 쪽으로 본다(Boxer, 1990; Bradford & Ryan, 1987).

8. 청소년 성소수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상담경험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성애적 정체성에 기반해 자신의 꿈과 주위의 기대를 맞춰야 하는 것과, 사회적인 낙인이 따르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점철되어 있는 자신의 동성애적 정체성을 통합시키는 가운데서 갈등을 겪는다. 동성애자로서 사는 것과 관련한 어떤 긍정적인 관계, 교육, 직업 등에 대한 모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것으로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의 주된 정신적 반응은 적응 문제를 겪거나, 심리사회적 발달에 손상을 입거나, 가족에서 소외되거나,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알콜이나 약물 남용, 우울, 자살사고, 성적 일탈 행동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Coleman & Remafedi, 1989). <표 2-5>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보여준다.

<표 2-5>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직면한 정신문제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	남성(18-25세)	여성(17-24세)
부모에게 커밍아웃하기	93%	-
친구에게 커밍아웃하기	63%	-
가족과의 관계	60%	46%
슬픔/우울	63%	40%
애인과의 관계	-	29%
불안	77%	26%
자아성장	-	23%
동성애자 되기	-	22%
AIDS 관련 문제	92%	27%
외로움	-	21%
알콜남용	22%	8%
약물남용	18%	6%

* 자료: D'Augelli(1991); Bradford & Ryan(1987)의 자료를 Ryan & Futterman(1998)이 재구성

청소년 동성애자의 삶 속에서의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연구에서,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gay-related stress)는 그들의 정신적 고통과 문제행동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osario, Rotheram-Borus, & Reid, 1994).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는 부모나 가족, 친구에게 커밍아웃하기, 성정체성이 밝혀지는 것,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받는 것 등을 말한다. 조사 대상자의 75% 이상이 지난 3개월간 하나 이상의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와 평균 6개의 비동성애 관련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동성애와 관련하여 만성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동성애 관련 스트레스도 이성애자 청소년들보다 3-5배 정도 더 많이 경험한다. 스트레스와 성적 지향에 관한 다른 연구에서 비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성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취약성이 더욱 증가하고 지지의 필요성도 더욱 높아진다고 하였다(Hershberger & D'Augelli, 1995; Remafedi, 1987).

청소년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처음 인지하기 시작한 연령이 어릴수록 보다 많은 문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Kulkin et al, 2000; Remafedi et al, 1991). 즉 인지시기가 어릴수록 동성애와 관련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없음으로 인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고립될 위험이 높고, 사회적 낙인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서 더 큰 심리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자신의 동성애적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경우에도 심리사회적 문제들이나 자살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lze, 2002). 또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공포증과 이성애중심주의로 인해 낙인화된 소수집단으로서 차별을 경험하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데, 이러한 반동성애 폭력의 희생자들은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며 자기희생의와 우울, 불안,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Garnets, Herek & Levy, 1990).

청소년 동성애자 사이에서 자살사고와 자살시도는 특히 높게 나타난다. Hershberger & D'Augelli(1995)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 고등학생의 자살시도율이 8-13%인데 반해, 청소년 동성애자의 자살시도율은 20-42%로 3배 정도 높다. 1980년대 미국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 동성애자의 자살시도가 청소년 이성애자보다 2-3배 높고, 전체

청소년 자살율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ibson, 1989). 이 보고서 이후의 많은 연구결과들 또한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48% - 76%가 자살에 대하여 생각하며 20% - 42% 정도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출이나 성폭력의 희생자일 경우 더욱 높았다(Bradford, Ryan & Rothblum, 1994; D'Augelli & Hershberger, 1993; Herdt & Boxer, 1996; Remafedi, 1987; Remafedi, 1991; Schneider, Faberow & Kruks, 1989; Russell et al, 2001). 청소년 동성애자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성정체성 인지시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불편감, 커밍아웃시 주변의 반응, 사회적 낙인이나 반동성애 폭력경험, 동성애자 커뮤니티와의 관계망, 친구수 등으로 나타났다(Kulkin et al, 2000; Curtis et al, 1994; Kourany, 1987).

주변에 적절한 지지체계가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대처 기술과 사회기술을 익힐 수 있게 해주고, 성(sexuality)에 대해 탐색하고 대인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성정체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비록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초기에 자신들의 성적 감정과 성적 지향에 대해 느낄 수 있게 되지만,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은 대부분 20대 초가 되어서이다(Schneider & Tremble, 1986). 따라서, 많은 동성애자들에게 청소년기는 이성애, 양성애, 동성애 사이에서 미결정과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동성애적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면 부정적 인식과 내적 스테레오타입이 강화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시기가 더욱 늦춰지게 된다. 만약 방임이나, 신체적·성적 학대, 심한 스트레스 등 역기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긍정적 게이 정체성을 발달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이런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살을 시도했거나 약물 의존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Hetrick & Martin, 1987).

많은 연구들에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가능하다면 상담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Coleman & Remafedi, 1989). 미국의 경우 15-19세 사이의 게이 청소년의 72%가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구했고(Remafedi, 1987), 17-24세 사이의 레즈비언 청소년의 약 62%가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았으며, 31%는 또래나 지지집단과 같은 비전문가를 찾았다고 한다(Bradford

& Ryan, 1987). 그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찾은 이유는 주로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나 가족 갈등,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 약물 남용, 우울과 불안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 물론 자살시도나 행동장애 등으로 의뢰되는 경우도 있었다.

9.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반동성애 폭력경험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이며 이성애중심적(heterocentric) 사회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부도덕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정체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동성애라는 낙인화된 정체성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즉 사회적으로 낙인화된 정체성을 스스로 긍정적인 정체성으로 바꾸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어떤 동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이런 낙인과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차별은 모든 연령의 성소수자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직접적인 차별은 직장이나 학교,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 등에 있어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예인 홍석천씨가 동성애자라는 것이 밝혀지자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런 직접적인 차별 외에 간접적인 차별도 있는데, 겉으로는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성소수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규칙이나 정책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피고용자의 배우자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을 취하면서 이성애 혼인관계로 한정짓는다면, 이는 사실상 동성 배우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성소수자에 대한 간접적 차별행위라고 볼 수 있다(김화숙 외, 2002). 이런 차별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예가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이다.

성인 동성애자들의 차별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

은 자신의 삶 가운데 성적 지향과 관련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Badgett, Donnelly & Kibbe, 1992). 특히, 에이즈가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에 폭력은 더욱 증가하였다. 1985-1989년 사이 반동성애 폭력(Anti-gay violence)은 거의 350%가 증가하였는데(Herek, 1991), 아직도 많은 범죄가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다.

반동성애 폭력(anti-gay violence)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유형의 상대방에게 사회 법규에 어긋난 차원에서 폭력이나 학대 행위를 가하는 증오범죄(hate crime)의 일종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에 의한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동성애 자체라기보다는 동성애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공포감이나 혐오감에 있는데, 이를 동성애공포증(homophobia)라고 한다. 사회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이성애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성애중심 사회이며, 따라서 동성을 상대로 한 성적 환상이나 감정을 억압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억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에게 적개심을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심할 경우,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과 강간, 살인 등 범죄 행위로 나타난다(Garnets, Herek, & Levy, 1990; Herek, 1986).

많은 사람들이 반동성애 폭력의 광범위성에 대해 잘 모르지만,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의 후원으로 작성된 혐오범죄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아마도 동성애자가 가장 빈번한 범죄의 희생자일 것이라고 한다(Herek & Berrill, 1992).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1992년 한 해 동안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 10건이나 발생했으며, 브라질은 1990년대 초반까지 320명의 게이와 살해되기도 했다(Hendriks, Tielman, & van der Veen, 1993; Singer & Deschamps, 1994).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한 동시에,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이다. 미국의 5대 도시에서 발생한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1988년 700여 건에서 1992년 1,900여 건으로 증가하였다(Singer & Deschamps, 1994).

또한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동성애자라고 드러낸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명예훼손, 괴롭힘, 협박, 폭행, 학대, 살인 등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레즈비언의 경우 남성들의 기회적 강간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Garnets, Herek, & Levy, 1990).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청소년/청년 동성애자들이다. 상당히 많은 수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의 가해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더욱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준다. Comstock(1991)의 조사에서 폭력사건의 가해자 중 50%가 20대 초반 이하이었고, 또 가해자의 90%는 남성이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인 동성애자와 안면이 없는 경우가 2/3를 차지했으며, 친분이 있는 경우가 다음이며, 세 번째 가해자는 경찰관이었다. 또한 신고를 해도 미국의 판례를 보면,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Singer & Deschamps, 1994). 이는 동성애자 피해자의 3/4 정도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Comstock, 1991).

이런 폭력과 서비스의 부재로 동성애자들은 고립과 침묵 속에서 범죄의 희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반동성애 폭력을 겪은 동성애자들을 심각한 자기회회와 우울, 불안, 자살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Brooks, 1981; Garnets, Herek, & Levy, 1992), 반동성애 폭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Meyer, 1995). 반동성애 폭력 경험은 세상을 의미있는 곳으로 지각하는 것을 방해하며, 자신의 가치를 절하하게 만든다. 특히 반동성애 폭력은 폭력경험 자체보다도 심리적인 영향이 더욱 큰데, 이는 거부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일으키며, 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폭력의 희생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보이는데, 언어폭력과 같은 심리적 상처를 받은 자나 신체적 공격을 받은 자나 마찬가지이다(Garnets, Herek, & Levy, 1990).

특히, 아직 정체성이 형성되는 단계에 있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동성애자의 경우 반동성애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그렇지만, 실

제로 청소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Remafedi(1987)는 청소년 남성 동성애자의 절반 이상이 또래집단으로부터 언어적 모욕을 당했다고 보고했으며, 30% 가량이 신체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폭력 경험은 남자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ussell & Joyner, 2001).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메인 등 3개 주, 9개 도시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한 동성애자 중 1/3-1/2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Pilkington & D'Augelli, 1995). 대학 캠퍼스에서의 반동성애 폭력에 대한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55-72%가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가해자의 64%는 동료친구이며, 23%는 교수나 교직원이라고 응답했다(Savin-Williams, 1994). 예일대생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42% 이상이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며, 1/5 정도는 성적 지향 때문에 2번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Herek, 1993).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집보다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커밍아웃을 했거나 동성애자로 의심받거나 동성애자처럼 행동하는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Pilkington & D'Augelli,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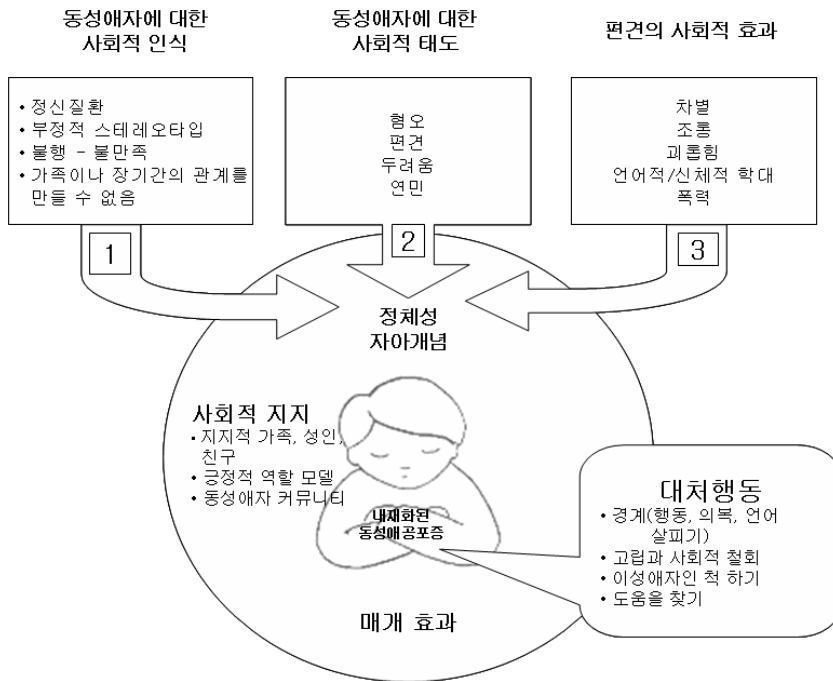
<표 2-6> 14-21세 청소년의 폭력 경험

언어적 폭력	80%	추적/따라오기	30%
공격 위협	44%	신체적 공격	17%
물건 던지기	33%	무기로 공격	10%

* 자료: 미국 14개 도시 조사. D'Augelli & Hershberger(1993)

또한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가족으로부터도 거부당하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 신체적 학대와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하였다(Goldfried & Goldfried, 2001). D' Augelli(1991)도 청소년 동성애자 중 1/3이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학대를 받으며, 1/4은 또래집단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하였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폭력을 당한 후에도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알려



<그림 2-3> 동성애 정체성에 대한 스티그마와 편견(동성애공포증)의 영향

* 자료: Allport(1965)의 자료를 Ryan & Futterman(1998)이 재구성

질까봐 또는 더 많은 폭력을 당할까봐 그것을 혼자 감내하거나 소수의 친구 또는 성인들에게만 도움을 구한다. 그리고 폭력의 후유증으로 신체화 증상과 함께 우울, 불안, 공포, 낮은 자아존중감, 자기비난 등을 겪게 되며, 심할 경우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Hershberger & D'Augelli, 1995). 만약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을 수도 있다. 만약 심각한 상처를 겪었다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 때문에 성적 지향이 드러나면 거부, 폭력, 집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Pilkington & D'Augelli, 1995). 만약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반동성애 폭력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것이 자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숨을 수밖에 없으며 발각의 공포에 떨며 자신을 더욱 비하하고 고립된다(Martin & Hetrick, 1988).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Allport(1954)는 부정적 태도와 차별을 정당화시키고 종종 폭력을 부르는 스테레오타입화의 과정을 <그림 2-3>과 같이 묘사했다. Allport는 희생자 집단의 성원은 편견에 대한 반응으로 일련의 대처 전략을 발전시키는데, 그것은 사회적 철회, 수동성, 경계적 태도, 자기혐오, 부정, 다른 성원에 대한 공격성 등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모든 것은 동성애자 정체성에 부여된 스티그마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반응인데, 특히 정체성 형성의 초기단계에 있는 동성애자들에게 심하다.

10. 청소년 성소수자의 학교적응과 가출

한국의 현실에서 학교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위험한 현상/행동으로 보고 있다. 어떤 학교에서는 ‘이반검열’이라는 것을 실시한다고 한다(한겨레21, 2005.12.13일자). 이반검열이란 이반(동성애자)으로 찍힌 학생이 그 행동에 대해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그 지도는 단순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감시에 가까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학교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괴롭힘과 언어적·신체적 학대, 교사와 친구들의 부정적 태도는 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Rofes, 1989; Sears, 1991; Malinsky, 1992). 학교 상담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2/3이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교사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80% 정도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42%는 학생들이 동성애자에 대해 놀리는 것을 무시한다고 응답했다(Sears, 1991). 청소년 동성애자의 학교 생활에 대한 연구에서, 20% 이하만이 학교에 자신을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응답했고(Telljohann & Price, 1993), 학교생활이 매우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아

무도 없었다(Malinsky, 1992).

이렇게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신체적 폭력, 적절한 지지의 부재, 집에서의 불인정 등으로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학업성적이 낮거나 비행을 저지르고 학교를 떠나기도 한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경우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Remafedi(1987)의 조사에 의하면 15-19세의 남자 청소년 동성애자 중 2/3 이상이 학교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했고, 28%는 중도탈락했다고 하였다. 4/5는 학교성적이 떨어졌다고 하였으며, 2/5는 지난 일년 동안 10번 이상 비행을 저질렀다고 하였다.

설사 학교에서 탈락되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자아개념과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자신의 직업개발(career development)에도 영향을 받는다. 어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결코 주류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직업적·교육적 목표를 포기하기도 하고, 지레 동성애자들의 직업이라고 알려진 직업에 자신의 꿈을 맞추다. 비록 모든 청소년들이 보편적인 기대와 이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도록 사회화되지만,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곧 그런 목표가 단지 이성애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적 지향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거의 절반의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직업 선택에 성적 지향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Woods, 1993). 마찬가지로 이 모든 차별과 편견, 사회적 스티그마를 목도하거나 경험한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또한 각종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들으며 자신의 인생계획, 발달과업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때로 차별과 편견, 내재화된 동성애공포증의 결과로 그들은 매우 한정된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Bidwell, 1992).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고립과 학대, 따돌림, 위협 등의 누적된 효과로 어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가출을 하기도 한다. 물론 자발적인 가출도 있지만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는 비자발적인 가출도 있다(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993; Bidwell, 1992; Gonsiorek, 1988; Hunter, 1992). 청소년 동성애자의 가출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 거리에 있는 청

소년들의 1/4 정도는 동성애자일 것으로 본다(Gibson, 1989). 지역적인 자료는 수치가 더욱 높아서 LA 가출청소년기관은 가출청소년의 25-35%가, 씨애틀 가출청소년기관은 가출청소년의 40%가 동성애자라고 추정했다(Kruks, 1991).

학교나 집을 떠난 청소년들은 착취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들은 고용이 될 만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매매춘이나 마약판매 또는 다른 불법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Bidwell, 1992; Savin-Williams, 1994). 어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위탁가정이나 쉼터, 또는 다른 사회복지기관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거기서도 차별이나 무시, 폭력을 당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뉴욕의 아동복지기관에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연구에서, 70% 이상이 성적 지향 때문에 폭력을 당했고, 56%는 때로 기관에 있을 때가 더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거리에서 지냈다고 응답했다(Mallon, 1994).

이성애자 동료들처럼, 집이 없거나 가출한 동성애자 청소년들은 종종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비롯된, 약물남용이나 정신건강문제, 자살시도, 성병, 임신과 같은 다양한 신체적, 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소년원과 같은 사법체계에 들어가는 청소년 동성애자들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도 다른 재소자나 간부들의 학대가 계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수용과 퇴소가 반복되는 사이클을 갖게 된다(Ryan & Futterman, 1998).

Ⅲ.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자

1. 조사방법
2. 연구대상자
3. 조사내용
4. 연구의 제한

III.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자

1. 조사방법

우리나라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성소수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먼저 설문조사는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으로서 스스로 이성애자가 아닌 성소수자로 규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5년 1월 10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1차로 105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 2차로 30명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여, 총 135명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청소년성소수자는 대상자의 특성 상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기를 꺼려하여 쉽게 발견되지 않으며 표본들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여 확률적 표집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접근 가능한 대상을 중심으로 표집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설문조사에서는 한국동성애자인권연대, 대학내 성소수자단체,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 인터넷 청소년성적소수자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소개받은 청소년을 통하여 다른 청소년성소수자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눈덩이 표집을 실시하였다. 한편 2차 설문조사에서는 표집의 성별과 연령이 일부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표집된 집단의 인구학적 구성비를 살펴보고, 부족한 집단에 대해 추가로 표집을 실시하는 의도적 표집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인터넷커뮤니티인 버디친구닷컴에서 18세 이상의 여자청소년에 대해, 인터넷 청소년게이커뮤니티를 통하여 18세 미만의 남자청소년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으로서 스스로 성소수자로 규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연구자가 접근 가능하고 인터뷰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청소년에 대해 실시하였다. 청소년 성소수

자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와 대학 내 성소수자동아리를 활용하였으며,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6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면접 시간은 1~2시간 소요되었으며, 인터뷰에서는 청소년의 성적체성에 관련된 경험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청소년에게 비밀보장과 연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음을 고지하고, 청소년의 동의 아래 인터뷰 내용을 녹음한 후 녹취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자

1) 설문조사 참여자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135명의 일반적 특징은 <표 3-1>과 같다. 참여자 가운데 동성애자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26명(93.3%), 양성애자라고 응답

<표 3-1> 설문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구 분		빈도	백분율
성정체성	동성애자	126	93.3
	양성애자	9	6.7
성별	남자	62	45.9
	여자	73	54.1
연령별	13-15세	12	8.9
	16-18세	62	45.9
	19-23세	61	45.2
학력별	중학교	17	12.7
	고등학교	64	47.8
	대학교이상	53	39.6
종교	기독교	33	24.8
	가톨릭	16	12.0
	불교	9	6.8
	기타	1	0.8
	없음	74	55.6

한 청소년은 9명(6.7%)이었다. 성별로 남자 62명(45.9%), 여자 73명(54.1%)이었고, 연령별로 13~15세 12명(8.9%), 16~18세 62명(45.9%), 19~23세 61명(45.2%)으로 연령평균은 18.7세(표준편차 2.4)이었다. 학력별로 중학교 재학·중퇴·졸업이 17명(12.7%), 고등학교 재학·중퇴·졸업이 64명(47.8%), 대학교 이상이 53명(39.6%)이었다. 종교별로는 기독교 33명(24.8%), 가톨릭 16명(12.0%), 불교 9명(6.8%), 기타 1명(0.8%), 없음 74명(55.6%)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가족특성을 살펴보면, 부모가 결혼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104명(77.6%)이고, 그 외에 별거, 이혼, 사별, 재혼 등의 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30명(22.4%)이었다. 부의 학력은 초등학교 11명(8.3%), 중학교 9명(6.8%), 고등학교 62명(46.6%), 대학교 35명(26.3%), 대학원이상 16명(12.0%)이었고, 모의 학력은 무학 1명(0.8%), 초등학교 7명(5.5%), 중학교 15

<표 3-2> 설문조사 참여자의 가족 특성

구 분		빈도	백분율
부모 결혼상태	기혼	104	77.6
	별거	7	5.2
	이혼	16	11.9
	사별	1	0.7
	재혼	5	3.7
	기타	1	0.7
부학력	무학	-	-
	초등학교	11	8.3
	중학교	9	6.8
	고등학교	62	46.6
	대학교	35	26.3
	대학원이상	16	12.0
모학력	무학	1	0.8
	초등학교	7	5.5
	중학교	15	11.8
	고등학교	73	57.5
	대학교	25	19.7
	대학원이상	6	4.7

명(11.8%), 고등학교 73명(57.5%), 대학교 25명(19.7%), 대학원이상 6명(4.7%)이었다.

2) 인터뷰 참여자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징은 <표 3-3>과 같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모두 동성애자이었다. 성별로 여자 4명과 남자 2명, 연령별로 16세부터 23세까지 참여하였고, 학력별로는 중학교 중퇴와 대학교 재학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인터뷰 참여자의 규모와 특성으로 볼 때,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동성애자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터뷰에 대한 분석은 청소년성소수자의 경험을 더욱 깊이 있게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들의 욕구를 발견하려는 보충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었다.

<표 3-3>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사례번호	성별	연령	학력	성정체성
1	여자	21세	대학교 재학	동성애자
2	여자	18세	중학교 중퇴	동성애자
3	여자	20세	대학교 재학	동성애자
4	여자	16세	중학교 중퇴	동성애자
5	남자	23세	대학교 재학	동성애자
6	남자	22세	대학교 재학	동성애자

3.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영역에 대해 질문을 구성하고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가 주로 동성애자로 구성되어, 동성애의 성정체성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탐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정체성 인지
- (2)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정체성 수용
- (3) 청소년 성소수자의 드러내기
- (4) 청소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관계
- (5)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소수자로서의 사회화
- (6)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과 사랑
- (7) 청소년 성소수자의 건강
- (8) 청소년 성소수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상담경험
- (9)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반동성애 폭력경험
- (10) 청소년 성소수자의 학교적응과 가출

각 영역에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정체성 인지에서는 성정체성 인지연령과 인지계기에 대해 조사하였다. 둘째,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정체성 수용에 대해서는 성정체성 편안정도, 성정체성 자긍심, 성정체성 변화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셋째, 청소년 성소수자의 드러내기에서는 커밍아웃을 한 대상과 커밍아웃 후의 반응에 대해 조사하였다. 넷째, 청소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청소년이 가족, 친구 등의 관계에서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와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섯째, 청소년 성소수자로서의 사회화에서는 청소년이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접한 경로, 동성애도 임참여 여부, 오프라인 모임 참여 정도, 동성애자 친구 수 등을 조사하였다. 여섯째,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과 사랑에서는 동성과의 교제여부, 교제자수, 교제기간, 동성과의 성관계 경험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곱째, 청소년 성소수자의 건강에서는 청소년의 콘돔사용, 에이즈검사경험, 음주와 흡연경험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여덟째, 청소년 성소수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상담 경험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위험성 등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함께 성정체성 관련 상담여부, 상담경로, 상담내용, 상담만족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홉째,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반동성애 폭력경험에서는 청소년이 놀림받은 경험, 아웃팅 경험, 부당처우, 반동성애 폭력피해 경험,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 인식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의 학교적응과 가출에서는 학교성적,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가출고민여부, 가출경험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커밍아웃시 수용,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위험성, 반동성애폭력피해, 학교적응 등에 대한 측정을 위해 기존에 사용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첫째, 커밍아웃시 수용정도는 Weinberg & Williams(1974)가 동성애자에 대한 수용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서 김은경(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 형제자매, 동성애자 친구, 이성애자 친구들이 동성애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를 전적거부에서 전적수용까지 9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거부(1점), 보통(2점), 수용(3점)의 3점 척도로 변환하여 빈도를 분석하도록 활용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Zimet et al(1988)이 개발한 MSPSS(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척도를 김지혜(2002)가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문항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87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에게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묻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지 등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문항을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여 10점에서 40점의 범위를 가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73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김재환, 김광일(1984)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재표준화한 간이정신건강진단검사(SCL-90)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9개의 소척도(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증,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와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부터 4점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척도 중 우울에 관한 하위척도 13문항을 사용하여, 기분이나 감정이 저조되어 있고 매사에 흥미를 잃어 버리고 의욕이 없어지고 희망을 잃은 상태를 측정하였다. 문항에 대한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사용하여 우울에 대한 점수는 최저 0점에서 4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문항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90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살위험성은 Harlow 등(1986)이 완성한 자살관념척도(SIS, Suicide Ideation Scale)를 조현진(1990)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 문항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54이었다.

여섯째, 반동성애폭력피해는 Dean 등(1992)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거나 추측하는 사람들로부터 겪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으며, 이를 김은경(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82이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은 박현선(1998)이 개발한 학교적응유연성 척도에서 학교나 교사, 수업에 대한 애착과 흥미 정도를 나타내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에 대한 하위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89로 나타났다.

4.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최초의 청소년 성소수자 생활실태조사로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이지만 주로 동성애자가 대상이 되었다. 양성애자의 수는 매우 적었고, 성전환자나 남녀추니 등의 기타 성소수자는 포함하지 못했다. 둘째, 표본수의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성소수자는 135명의 설문조사 응답자와 6명의 인터뷰 응답자들이다. 이는 전체 청소년 성소수자의 규모를 전체 청소년의 2-10% 정도로 볼 때, 매우 소수이

다. 셋째, 표집방법의 한계를 가진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모집단을 알 수 없으므로 확률표집의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할 수 없었고, 본 연구에서는 편의 표집과 눈덩이표집과 같은 비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 성소수자에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정체성 인지
2.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정체성 수용
3. 청소년 성소수자의 드러내기
4. 청소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관계
5.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소수자로서의
사회화
6.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과 사랑
7. 청소년 성소수자와 건강
8. 청소년 성소수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상담경험
9.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반동성애 폭력경험
10. 청소년 성소수자의 학교적응과 가출

IV. 연구결과

1.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정체성 인지

<표 4-1>은 청소년이 성정체성에 대한 인지연령과 인지계기를 보여준다. 청소년들이 성정체성을 인지한 연령은 13~15세가 78명(57.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세미만 28명(20.7%), 16~18세 24명(17.8%), 19세 이상 5명(3.7%)이었다. 인지연령의 최소값은 5세, 최대값은 21세로 조사되었고, 평균 연령은 13.8세(표준편차 2.8)로 많은 청소년들이 중학교시기에 성정체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성정체성 인지

구 분		빈도(비율)	전체
성정체성 인지연령	5-12세	28(20.7)	135(100.0)
	13-15세	78(57.8)	
	16-18세	24(17.8)	
	19-21세	5(3.7)	
성정체성 인지계기	주변 동성친구나 선생님을 좋아하면서	94(69.6)	135(100.0)
	주변 동성친구나 선후배가 나를 좋아하면서	18(13.3)	
	동성 연예인에게 관심이 생기면서	6(4.4)	
	동성애 관련 문화를 접하면서	5(3.7)	
	동성으로부터 성폭력 경험을 당한 이후	3(2.2)	
	기타	9(6.7)	

성정체성을 인지하게 된 계기는 ‘주변 동성친구나 선생님을 좋아하면서’가 94명(6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변 동성친구나 선후배가 나를 좋아하면서’가 18명(13.3%), ‘동성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가 6명(4.4%), ‘동성애 관련 문화를 접하면서’가 5명(3.7%) 등이었다. 한편, ‘동성으로부터 성폭력 경험을 당한 이후’에 성정체성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3명(2.2%)이 있었다.

청소년들은 주변 동성을 좋아하게 되고 ‘끌리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왜 그러한 감정을 겪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이성을 좋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이 다른 청소년과는 다른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증폭되면 갈등과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어렸을 때는 나도 자연스럽게 남들처럼 남자친구를 사귀고 그럴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남자들에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은 했지만 그런 자체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는 않았고 그러다가 중학교 입학하면서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거든요, (청소년3, 여, 20)

(내가 이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에는) 이상했죠, 다른 사람들은 남자랑 여자랑 그러는데 저는 혼자서 여자를 막 좋아하니까, 무슨 힘든 일 있을 때도 그렇고 누구한테 고민 이야기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런 생각 했었어요, (청소년2, 여, 18)

그때 막 한참 정신이 없으면서 내가 개한테 도대체 어떻게 느끼는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 이게 우정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사랑이라면 이게 진짜 사랑이냐 아니면 내가 고등학교 때 심심해가지고 장난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혼자 막 이랬다 저랬다 계속 그게 반복이 됐었어요, (청소년5, 남, 23)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 중에서 남자에 좀 관심 있었다 싶었던 건 중학교 때 반에서 되게 몸 좋았던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스터베이션을 (했거든요), 확실하게 나는 기억은 그게 제일 어릴 때 나는 기억이고, 그 땐 아무래도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던 거 같아요, (청소년6, 남, 22)

성정체성을 인지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주변의 동성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주요한 계기이지만, 실제로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동성애자’ 또는 ‘이반’이라는 용어를 접하고 동성애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동성애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이나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동성애자단체에 접촉하거나, 동성애자 친구를 만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탐색을 계속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정체화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거를 동성애라는 그런 이름을 모른 채로, 아 그냥 왠지 나는 재를 보호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재와 가까이 있고 싶다는 생각만 개한테 가졌었고, 개를 계속 2년 3년 동안 좋아하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슬슬 인터넷이 보급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게 동성애자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조금씩 말하더라고요, 그러가지고 아 내가 동성애자일지도 모르겠더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때부터 조금씩 (인터넷 동성애자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다른 사람들 고민도 한번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정체성을 찾아갔죠. (청소년1, 여, 21)

공식적으로 생각하게 된 건 아무래도 고1 때 올라와서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서 다음 카페에서 ‘동성애자’ ‘게이’ 이런 쪽으로 검색을 하니까 짹 나오더라고요, 그 때 되게 놀랐죠,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데 가입을 해서, 그 때는 내가 동성애자구나 그런 걸 받아들였던 거 같아요. (청소년6, 남, 22)

2.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정체성 수용

<표 4-2>는 청소년의 성정체성에 대한 편안함, 자긍심, 변화에 대한 생각을 보여준다. 성정체성을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에 대해 매우 편안하게 느끼

<표 4-2> 성정체성 수용

구 분		빈도(비율)	전체
성정체성 편안정도	매우 편안하게 느끼는 편이다	34(25.2)	135(100.0)
	편안하게 느끼는 편이다	59(43.7)	
	보통이다	30(22.2)	
	불편하게 느끼는 편이다	11(8.1)	
	매우 불편하게 느끼는 편이다	1(0.7)	
성정체성 자긍심 (프라이드)	매우 그렇다	36(26.7)	135(100.0)
	약간 그렇다	38(28.1)	
	보통이다	43(31.9)	
	별로 그렇지 않다	17(12.6)	
	매우 그렇지 않다	1(0.7)	
성정체성 변화에 대한 생각	분명히 변할 것이다	2(1.5)	135(100.0)
	아마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51(37.8)	
	아마 변하지 않을 것이다	54(40.0)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28(20.7)	

는 편 34명(25.2%), 편안하게 느끼는 편 59명(43.7%)이었고, 보통이다 30명(22.2%), 불편하게 느끼는 편 11명(8.1%), 매우 불편하게 느끼는 편이 1명(0.7%)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편안하거나 보통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정체성에 대한 자긍심(프라이드)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6명(26.7%), 약간 그렇다 38명(28.1%), 보통이다 43명(31.9%), 별로 그렇지 않다 17명(12.6%), 매우 그렇지 않다 1명(0.7%)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13% 정도의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성정체성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변할 것이다 2명(1.5%), 아마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51명(37.8%), 아마 변하지 않을 것이다 54명(40.0%),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28명(20.7%)으로, 청소년 가운데 40% 정도는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60% 정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성적체성을 발견한 후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인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들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성적체성을 발견한 초기에 청소년들은 자신이 ‘다름’에 대해 불편함을 경험하고 정상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은 자신이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 자신이 잘못을 했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해서 죄책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애써 그런 감정을 떨쳐 버리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청소년5(남, 23): 개네들 감정이랑 내 감정이랑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아가지고 일부러 피했어요,

연구자 : 그럼 다르다는 느낌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청소년5: 아니오, 많이 불편했어요, 그냥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 그런 생각을 안하려고 하는 쪽으로 많이 갔어요, 예를 들어, 뭐 성적인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상을 하다가도 안하려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되지, 이런 식으로,

일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자긍심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다름’에 대해 비정상 또는 문제라고 규정하던 생각에서 벗어나, 다름을 또 하나의 자신의 특징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자신과 같은 성소수자가 자신 외에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신의 특징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가운데에는 소수자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른 소수자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사회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계속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남들에게 알려주고 남들의 이야기도 듣다 보니까 이게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

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때부터 저는 굉장히 기뻐요, 이제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거(동성애)에 대해서도 뭐 끌리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청소년1, 여, 21)

그러나 성정체성에 대해 자긍심을 갖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경우의 청소년도 존재한다. 자신을 열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숨기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자긍심을 가질만한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부끄럽지는 않은데, 부끄럽다는 감정도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알았을 때 내가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런 거라면 부끄럽거나 싫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는 익명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남들에게 아무 티도 안내고 다니니까,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특별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서 부끄러운 것도 없고, 자긍심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싫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냥 숨기고 있는 체니까, (청소년6, 남, 22)

성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은 확고하다는 입장과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 공존하여 나타난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성정체성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는 자연스러운 자신의 정체감 발달의 과정으로 얻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막연한 기대이거나 자신의 정체성과 생활을 분리하는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인지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겪지만, 그 후에도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다시 의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 눈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래도 어떻게 평생을, 평생 여자를 좋아하겠느냐고, 20살 21살 그 정도 지나면 남자 만나겠지 그냥 이런 생각했어요. (청소년2, 여, 18)

게이는 확실한데, (...) 평생을 게이로 살겠다 그런 생각은 좀 없는 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생각에는 변하진 않겠지만 그 나이쯤 되면 만약에 결혼하게 된다면, 그냥 숨기고 사는 쪽이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6, 남, 22)

청소년들 가운데에서는 자신의 성적 지향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생물학적 성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경우가 드러난다. 그러나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더 이상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수용하고 인정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진짜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답에 사회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너무 남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동성애자라는 걸 받아들인 계기도, 동성애자라는 건 제가 여자고 다른 사람도 여자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과 원만하게 된 고3 때 그 때부터 이제 제 자신을 조금씩 좋아해 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여자인 것도 괜찮구나 이렇게 여자로서 다른 여들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면서 이제 나는 내가 남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이제 진짜 나 동성애자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청소년1, 여, 21)

3. 청소년 성소수자의 드러내기

청소년 가운데 적어도 한 명 이상에게 커밍아웃을 한 청소년은 122명(90.4%)이었다. <표 4-3>을 보면, 가장 많은 청소년이 커밍아웃을 한 대상은 동성애자 친구로 115명(85.2%)이고, 다음은 이성애자 친구 90명(66.7%), 형제자매 39명(28.9%)이었다. 아버지에게 커밍아웃한 청소년은 22명(16.3%), 어머니에게 27명(20.0%), 친척에게 11명(8.1%)이었고, 교사에게 커밍아웃한 청소년은 6명(4.4%), 상담가에게 8명(5.9%)이었다.

<표 4-3> 커밍아웃

단위: 빈도(%)

	커밍아웃	커밍아웃 후 반응		
	빈도(비율)	거부	보통	수용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13(9.6)	-	-	-
아버지	22(16.3)	13(59.1)	7(31.8)	2(9.1)
어머니	27(20.0)	11(40.7)	11(40.7)	5(18.5)
형제자매	39(28.9)	10(27.8)	11(30.6)	15(41.7)
친척	11(8.1)	2(28.6)	3(42.9)	2(28.6)
동성애자 친구	115(85.2)	1(0.9)	3(2.8)	102(96.2)
이성애자 친구	90(66.7)	6(7.0)	29(33.7)	51(59.3)
교사	6(4.4)	4(66.7)	-	2(33.3)
상담가	8(5.9)	2(33.3)	3(50.0)	1(16.7)

청소년들은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불편해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상대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상대방이 그것으로 인해 충격을 받거나 자신을 비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 청소년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택한다. 반면, 상대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청소년은 커밍아웃을 하기로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을 신중하게 고르고 심사숙고 한 후 커밍아웃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엄마 아빠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친한데, 내가 (동성애자인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게 제일 걸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결심해서 동생한테도 말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말했는데, (청소년5, 남, 23)

직접적으로 부모님과 대화해 본 적은 없는데 방송이라든지 언론매체에서 그게[동성애가] 화두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들으면서 저런 미친놈들이 다 있냐고 제가 듣고 있었는데 공포감 드는 발언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커밍아웃을) 못하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청소년 3, 여, 20)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누나한테도 말할 생각은 없어요, 상처를 안주고 싶고, (...)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내가 그냥 착한 아들로 남아 있기를 저는 원해요. (청소년6, 남, 22)

청소년2(여, 18): 나 이러이러해서 누구랑(여자와) 사귀고 있다고 제가 먼저 직접적으로 얘기 한거는 사촌동생이 처음이에요,

연구자: 그렇구나, 그때는 왜 얘기하고 싶었어요?

청소년2: 사촌동생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청소년들은 커밍아웃을 한 후에 상대의 반응은 전적인 수용에서 전적인 거부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설문조사 결과, <표 4-3>과 같이 아버지, 어머니, 교사의 경우 거부적이었다는 반응이 각각 59.1%, 40.7%, 66.7%로 나타났고, 수용적이었다는 반응은 각각 9.1%, 18.5%, 33.3%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와 친척의 경우에는 거부적 태도가 각각 27.8%, 28.6%이고, 수용적인 태도는 각각 41.7%, 28.6%이었다. 동성애자 친구와 이성애자 친구의 경우에는 거부적인 태도는 0.9%와 7.0%로 적었고, 반면 수용적인 태도는 각각 96.2%와 59.3%이었다. 상담가의 경우 거부적인 태도가 33.3%이고 수용적인 태도는 16.7%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형제자매의 경우 부정적인 반응이 있지만 수용적인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커밍아웃을 했을 때 가장 수용을 받는 대상은 동성애자 친구이고, 이성애자 친구는 수용을 하거나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등 크게 거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의 경우 부모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교사의 경우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담가의 경우에는 부모나 교사보다는 덜한 수준이지만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수용적인 태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를 살펴보면, 커밍아웃을 할 때 부모의 거부 반응은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침묵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등의 태도로 나타난다. 부모가 침묵을 하는 경우는 자녀의 성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라

기보다는, 부모가 스스로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거나, 대처방법이 없는 등 침묵을 통해 거부 의사 표시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그 때[커밍아웃을 했을 때] 받으셔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청소년 1, 여, 21)

아빠한테도 애길 했는데, 아빠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한 다음부터 내 눈도 못 쳐다보고, 며칠 동안 마주치지도 않고, 집에 오면 방에 들어가 누워버리고, (청소년 5, 남, 23)

부모가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자녀의 인생에 대해 염려하고 행복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드러내며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³⁾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자녀의 성정체성을 완전히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자녀의 성정체성에 대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혹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부모가 청소년의 성정체성에 대해 비난을 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이 부모와 자신의 연애생활 등 동성애자로서의 삶에 대해 공유하면서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는 말은 안하셔도 이런 말을 하세요 가끔, 너는 남들이랑 다르니까 니가 이제 진짜 힘들지 않고 살아갈려면 넌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해야 된다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손가락질 받지 않게 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부모님하고는 아직은 그런 상태예요, 부모님한테 저는 동성애자예요라는 말한 이후로, '현재 누구랑 깨졌고 누구랑 사귀고 있어요' 이런 말은 안하고 있고, (청소년 1, 여, 21)

3) 청소년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수용하기에 단계가 있는 것처럼, 부모의 경우에도 자녀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불신과 부인에서 수용으로 이행하는 단계가 나타난다(Ryan & Futterman, 1998). 본문에서 인용된 청소년의 사례의 경우 수용과 거부의 반응이 동시에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로 나타난 것이었다.

엄마랑 아빠랑 셋이 있는데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나도 울고, 아빠도 울고, 엄마도 울고 (...) 아빠가 제일 슬픈 건 자기는 이렇게 평범하게 살면서 많은 기쁨을 누렸는데 내 아들이 그런 기쁨을 못 누린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 그러면서 편하게 (되었어요), 아직 완전히 그런 건 아니고, 완전히 받아들일 순 없는 거 같고, (청소년5, 남, 23)

형제나 친구들은 부모나 선생님과 같은 성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용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커밍아웃 당시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점차 청소년을 이해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다만 이것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커밍아웃을 하기 때문일 수 있다.

나도 처음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얘기하면서 막 몸을 떨었어요, 그러니까 개[동생]도 그걸 알기도 하고, 자기도 좀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말하고 나서 처음에 한 5분 정도 당황해서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자기는 기분이 좋대요, (...) 그러면서 멋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멋지다고 생각한다고, 하여튼 자기는 적극적으로 밀어준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개가 물어보기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지금도 웬만하면 다 얘기하면서 지내요, (청소년5, 남, 23)

오랫동안 알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밝혔죠, 그만큼 저 나름대로는 깊이 고민을 했고 나랑 이 정도 알고 지내왔으면 너무 무지하다거나 매물 차지는 않을 거 같다,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었기 때문에 밝혔어요, (...) 저는 사실 커밍아웃을 할 때 매우 조마조마 했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제도 저인 거고 밝혀질 때도 저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친구들이 받아들여주니까 그 자체로 고마웠어요, (청소년3, 여, 20)

4. 청소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관계

청소년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표 4-4>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는 청소년은 76.1%,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청소년이 76.9%,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표 4-4> 사회적 지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위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	2 (1.5)	10 (7.7)	19 (14.6)	71 (54.6)	28 (21.5)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11 (8.5)	19 (14.6)	65 (50.0)	35 (26.9)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다.	2 (1.5)	8 (6.2)	25 (19.2)	49 (37.7)	46 (35.4)
나의 감정에 대해서 보살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7 (5.4)	20 (15.4)	29 (22.3)	37 (28.5)	37 (28.5)
나의 가족은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12 (9.2)	16 (12.3)	39 (30.0)	41 (31.5)	22 (16.9)
나의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인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	15 (11.5)	29 (22.3)	36 (27.7)	37 (28.5)	13 (10.0)
나의 문제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25 (19.2)	39 (30.0)	36 (27.7)	25 (19.2)	5 (3.8)
나의 가족은 기꺼이 내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와주려고 한다.	22 (16.9)	26 (20.0)	36 (27.7)	32 (24.6)	14 (10.8)
나의 친구들은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1 (0.8)	9 (6.9)	43 (33.1)	52 (40.0)	25 (19.2)
일이 잘못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2 (1.5)	7 (5.4)	26 (20.0)	63 (48.5)	32 (24.6)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다.	3 (2.3)	9 (7.0)	27 (20.9)	52 (40.3)	38 (29.5)
나의 문제에 대해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7 (5.4)	10 (7.7)	27 (20.8)	55 (42.3)	31 (23.8)

있다는 청소년은 73.1%로 전반적으로 70%이상의 청소년이 도움이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족의 지지에 대해서는, 가족이 나를 도와주려고 노력한다는 청소년이 48.4%, 가족에게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는 청소년이 38.5%, 가족이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는 청소년이 35.4%이었다. 친구의 지지에 관해서,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노력한다는 청소년이 59.2%, 일이 잘못 되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청소년이 73.1%,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다는 청소년이 69.8%, 자신의 문제에 대해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청소년이 66.1%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 학생집단에 대해 실시한 다른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0~98%, 형제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1~88%,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7~87%이었던 것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김경준 외, 발간예정).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하여 독특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못하는 사실을 품고 있다는 것 때문에 청소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아, 나는 이제 내가 동성애자니까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고 이제 가족이랑 약간 동떨어진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거리감, 거리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청소년1, 여, 21)

청소년 동성애자였을 때부터 제가 계속 (...) 자기 얘기를 남들에게 함부로 못 꺼내잖아요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맨날 뭐 남자친구나 남자 얘기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할게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를 전혀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소외감만 들고 애는 내가 말을 해도 인정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 그렇게 말을 못하게 됨으로 해서 말수가 되게 적어지고 웬지 세상으로부터 나는 떨어져있는 것 같고 소외감도 느끼고 그렇게 느끼는데 (...) 근데 그거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하고 쉬운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힘든 거라구요. (청소년1, 여, 21)

친구관계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의도적으로 자신과 같은 성정체성을 가진 청소년들과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나타난다. 반면, 이성애자인 친구들에 대해서는 친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거리를 두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청소년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고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청소년들은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에 친구와의 관계가 발전되고 유지되었던 경험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성애자들은 다 말하는 부분인데 나는 말 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 사실 얘기[커밍아웃]해가지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얘기 안하면 어차피 더 이상 친해질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청소년5, 남, 23)

이반이 된 이후로 일반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났거든요, (...) 차라리 (내가 이반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그냥 연락을 끊었거든요, 말하면 막 그냥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귀찮, 아니야 생각하기도 싫고요, 그냥 내버려두자 하는 식으로 연락도 끊어서 살고 그래요, (청소년4, 여, 16)

그렇게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커밍아웃을 하는 친구가 점점 늘어날수록 뭔가 애인과의 힘든 거나 내 애인과의 일상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함부로 터놓을 수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탁 터놓으면은 뭐랄까 갈등이 해소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딱 해소되면서 그 친구가 더 좋아지고 이제 진짜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청소년1, 여, 21)

5.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소수자로서의 사회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사회화된다. 그런데,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이었으므로,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4-5>를 보면, 청소년이

<표 4-5> 동성애자 커뮤니티

구 분	빈도(비율)	전체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접한 경로	인터넷	100(74.6)
	친구	27(20.1)
	신문이나 잡지	1(0.7)
	이반업소	2(1.5)
	극장이나 화장실	4(3.0)
동성애모임 참여여부	그렇다	119(88.1)
	아니다	16(11.9)
오프라인모임 참여정도	정기적으로 참여	41(36.6)
	가끔 참여	41(36.6)
	1번 정도 참여	12(10.7)
	참여하지 않음	18(16.1)
동성애자 친구수	0-1명	15(11.2)
	2-5명	29(21.6)
	6-10명	26(19.4)
	11-30명	34(25.4)
	31명 이상	30(22.4)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처음 접하게 된 경로는 주로 인터넷과 친구를 통해서로 각각 100명(74.6%)과 27명(20.1%)이었다. 이 가운데 인터넷 카페 등 동성애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19명(88.1%)으로, 이 중 오프라인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는 청소년은 41명(36.6%), 가끔 참여 41명(36.6%), 1번 정도 참여 12명(10.7%)이었고, 오프라인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청소년이 18명(16.1%)이었다. 동성애자 친구수에 대해서는 친구가 전혀 없거나 1명인 청소년이 15명(11.2%), 2~5명이 29명(21.6%), 6~10명이 26명(19.4%), 11~30명이 34명(25.4%), 31명 이상이 30명(22.4%)으로, 평균 친구수는 28.8명(표준편차 54.5)이었다. 다만, 이와 같이 커뮤니티 참여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조사가 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이 커뮤니티를 찾는 데에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동

기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게 되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맨 처음에는 그런 모델이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 그 다음에 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그런 친구를 갖고 싶은 게 굉장히 강했어요, (...) 그때는[커뮤니티에 들어갔을 때에는] 굉장히 해방감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해졌고 뭔가 이제야 내 삶을 능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5, 남, 23)

그렇지만 커뮤니티를 가입하기까지 청소년은 상당히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으면 서로 다른 동성애자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된다.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성적체성을 노출한다는 것이므로 아웃팅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겪게 된다. 실제로 청소년 가운데에서는 동성애자 집단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무서웠죠, 저는 대학교 와서 (동성애자) 커뮤니티 가입하기 전에 되게 많이 망설였어요, (...)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은 안하지만 웬지 정말로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엄두가 안났어요. (청소년3, 여, 20)

이반친구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 많아요, 괜히 막 저한테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악한 애들은 나쁘게 굴 수도 있고 서로 싸우고 그래 가지고 (잘 안 만나요) (청소년4, 여, 16)

6.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과 사랑

청소년이 동성과 교제한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표 4-6>과 같다. 청소년 중 적어도 한 명의 동성과 교제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03명(83.1%)이었다. 청소년이 교제했던 대상의 수가 2~5명인 경우가 43.5%로 가장 많았고, 1명인 경우 19명(15.3%), 6~10명인 경우 19명(15.3%), 11~30명인 경우 6명(4.8%)이고, 31명 이상인 경우는 5명(4.0%)으로, 평균 교제자수는 10.4명(표준편차 29.5)이었다. 동성과 교제한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가 55명으로 56.7%이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가 21명으로 21.6%이었다. 교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5명(5.2%), 1년 이상인 경우는 16명(16.5%)으로, 평균 교제기간은 6.2개월(표준편차 8.1)이었다.

<표 4-6> 동성과의 교제

구 분		빈도(비율)	전체
동성교제자수	없다	21(16.9)	124 (100.0)
	1명	19(15.3)	
	2-5명	54(43.5)	
	6-10명	19(15.3)	
	11-30명	6(4.8)	
	31명 이상	5(4.0)	
교제기간	1개월 미만	5(5.2)	97 (100.0)
	1개월이상-6개월미만	55(56.7)	
	6개월이상-1년미만	21(21.6)	
	1년 이상	16(16.5)	
동성과 성관계 경험	그렇다	99(73.9)	134 (100.0)
	아니다	35(25.9)	
동성과 첫 성관계 시기	6-12세	2(3.5)	57 (100.0)
	13-15세	12(21.1)	
	16-18세	24(42.1)	
	19-22세	19(33.3)	

동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가운데 99명으로 73.9%이었다. 동성과 처음으로 성관계를 한 시기는 최소값이 6세이고 최대값이 22세로 나타났고, 12세 미만 2명(3.5%), 13~15세 12명(21.1%), 16~18세 24명(42.1%), 19세 이상 19명(33.3%)으로 나타났다. 동성과의 첫성관계 평균연령은 17.2세(표준편차 2.9)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학생청소년에 대한 조사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청소년위원회(2006)의 2005년도 조사결과에서 4.5%로 나타났고, 김경준 외(발간예정)의 2006년도 조사결과에서 2.1%로 나타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로, 청소년성소수자 집단에서 동성과의 성관계 경험이 일반적인 이성과의 성관계에 비해 더욱 빈번하게 시도되고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통해 표집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동성과의 만남을 비교적 활발하게 갖는 일부 청소년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인터뷰를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는 동성과의 교제경험이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동성과의 교제경험이 성정체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은 동성에 대한 끌림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상대의 반응에 대한 불안감으로 동성과 선뜻 교제를 시도하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교제를 하지 않기로 택하기도 한다.

애랑 진짜 키스를 하고 그러니까 그 담부터는 전혀 뭐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확실하게 이반이구나, 내가 정말로 여자와 육체적 관계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거만 알았어요, (청소년 1, 여, 21)

일반[이성애자](을) 짝사랑해 본 적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좋아한 애가 있었는데, 저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을 잘 못 걸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걔는 저를 뭐 이쪽[동성애]으로가 아니라 친하게 지내고 싶어했던 거 같아요, 학기 초에, 제가 되게 피했었어요, (청소년 6, 남 22)

청소년 3(여, 20): 좋아한 적은 한 번 더 있었는데 사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연구자: 사귀고 싶지 않아요?

청소년 3: 별로,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주변에 사귀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안 좋았어요,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 부모님께서 알게 되거나 그런 경우요,

또한 일반적인 통념에서 동성과의 성행위와 동성애자라는 정체감을 혼돈하여 사용하는 것에 비해, 성관계 경험이 성정체감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의 성관계 양상은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나누거나, 사랑과 성을 분리시켜서 사랑은 하지 않지만 성관계를 맺는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청소년 5(남, 23) : 게이 문화가 있잖아요, (...) 맨 처음에는 그게 재밌었는데, 점점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좀 다른 거 같고, (...) 저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면서 좋아하고 싶는데 사실 그게 힘들잖아요, 춤추는 건 좋아해서 가끔씩 가서 추는데 춤추러 가서 사람들 구경하고 (그러지만) 이런 건[익명의 만남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연구자 : 그러면 성경험은 없어요?

청소년 5 : 없어요,

사건 적은 없죠, 잠 잔 적은 있는데 연애했 본 적은 없는 셈이죠, (...) 저 같은 경우는 섹스는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연애했 때 섹스는 정말 사랑을 해서 사랑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제가 연애했 하게 되면 그 사람이랑 쉽게 섹스는 안하게 될 거 같아요, 정말 좀 익숙해지고 나서, 친해지고 나서 섹스를 할 거 같아요, (청소년6, 남, 22)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동성과의 교제에 대해서 이성애적인 관계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랑의 감정과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해 똑같은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지금 애인과의 관계는 어떤 것 같아요?

청소년1(여, 21): 그냥 보통 일반 커플들처럼, 알콩달콩 하다고 해야 되나,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고, (...) 이제는 왠지 정착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애인을 만난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일이 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애랑은 별로 깨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또한 그런 생각이 안들게 제가 최대한 만들고 있죠, (...)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좋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좋아하고 헤어지고 그러는 거는 다 마음은 똑같잖아요, 얼마큼 좋아했는지 그런게 다 마음도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남자랑 사귀어도 여자랑 사귀어도 헤어져도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청소년2, 여, 18)

7. 청소년 성소수자와 건강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생활과 관련된 건강과, 음주와 흡연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청소년 중 동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하는지 질문하였다. <표 4-7>과 같이, 응답한 청소년 97명 가운데 항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3명(13.4%)이고, 대부분 사용한다 16명(16.5%), 가끔 사용한다 22명(22.7%)이었고, 전혀 하지 않는다는 청소년은 46명(47.4%)으로 나타났다. 에이즈 검사 경험은 있는 청소년은 13명(9.6%)이었다.⁴⁾

음주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11명(82.2%)이고, 그렇지 않다는 청소년이 24명(17.8%)이었다. 음주량은 거의 매일 마신다 3명(2.7%), 일주일에 2~3회 정도 23명(20.7%), 일주일에 1회 정도 22명(19.8%), 1달에 2~3회 정도 29명(26.1%), 1달에 1번 정도가 34명(30.6%)이었다. 흡연에 대해서는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0명(51.9%)이었고, 흡연량은 하루에 1갑 이상이 11명(16.2%), 하루에 1갑 정도 7명(10.3%), 2~3일에 1갑 정

4) 청소년의 콘돔 사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에이즈의 위험이 거의 없는 여자 청소년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p.84 <표 5-6> 참고)

<표 4-7> 청소년 성소수자의 건강

구 분		빈도(비율)	전체
콘돔 사용	항상 한다	13(13.4)	97 (100.0)
	대부분 한다	16(16.5)	
	가끔 한다	22(22.7)	
	전혀 하지 않는다	46(47.4)	
에이즈 검사 경험	있다	13(9.6)	135 (100.0)
	없다	122(90.4)	
음주여부	그렇다	111(82.2)	135 (100.0)
	아니다	24(17.8)	
음주량	거의 매일	3(2.7)	111 (100.0)
	일주일에 2-3회 정도	23(20.7)	
	일주일에 1회 정도	22(19.8)	
	1달에 2-3회 정도	29(26.1)	
	1달에 1번 정도	34(30.6)	
흡연여부	그렇다	70(51.9)	135 (100.0)
	아니다	65(48.1)	
흡연량	하루에 1갑 이상	11(16.2)	68 (100.0)
	하루에 1갑 정도	7(10.3)	
	2-3일에 1갑 정도	20(29.4)	
	일주일에 1갑 정도	14(20.6)	
	2주일에 1갑 정도	2(2.9)	
	한달에 1갑 정도	14(20.6)	

도 20명(29.4%), 일주일에 1갑 정도 14명(20.6%), 2주일에 1갑 정도 2명(2.9%), 한달에 1갑 정도는 14명(20.6%)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표본에 만 19세 이상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청소년위원회(2006)의 조사에서 중고생 가운데 음주율이 36.6%, 흡연율이 8.6%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사회통념 상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질병이라는 생각이 퍼져있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은 한 번쯤 에이즈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에 대해 정보를 습득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는 동성애자라는 걸 부모님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구적으로 동성애자라는 거에 대해 많이 찾아보고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동성애자들이 꼭 에이즈를 걸리는 것도 아니고 섹스를 통해서 에이즈를 걸리는데 상대방이 에이즈를 걸리지 않으면 걸릴 위험도 아주 없고 게다가 레즈비언은 없구나, 이걸 일찍부터 깨달은 상태라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청소년 1, 여, 21)

이번에 00에서 자원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번에 주제가 에이즈에 대한 거예요, 세미나 많이 나가고 그래서 배운 게 많아서, 콘돔이라고 해서 다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에이즈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콘돔을 사용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에이즈에 걸려서 막 죽는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해요,) 에이즈에 걸려도 약 복용을 잘하고 그러면 잘 살고, 그렇다고 성관계를 (영원히) 안하고 살 것도 아니고, (청소년5, 남, 23)

청소년은 에이즈나 성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콘돔을 사용하게 되거나, 성관계를 통한 에이즈 감염 가능성이 적은 여자동성애자의 관계에서도 염증이 나 상처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콘돔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청소년이 이러한 성지식을 습득하는 통로는 인터넷이나 친구로 제한되기 때문에 청소년마다 에이즈나 성병에 관한 지식은 천차만별이며, 관련된 정식 교육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 에이즈나 성병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때는 그렇게까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냥 손가락을 넣고 위생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대학교 올라오니 까 그게 아닌 거예요, 레즈비언도 에이즈와는 별개로 위험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 이걸 걸 알게 되니까 그 이후로는 콘돔을 꼭 써요, (청소년1, 여, 21)

처음 했을 때는 정신이 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르는 콘돔이 뭐 있대요, 제 생각에는 바르는 콘돔이 아니고 그냥 젤인데 자기가 콘돔을 쓰는 걸 싫어하는 타입이었겠죠, 제가 처음이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싶으니까 대충 그런 식으로 속였겠죠, 그 때는 그렇게 해서 그냥 콘돔 상태로 했었는데, 다행히 뭐 별 일 없는 거 같더라구요, 병 걸린 거 같지도 않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콘돔 써 왔어요, (청소년6, 남, 22)

8. 청소년 성소수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상담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표 4-8>과 같이 27.68점(표준편차 4.42)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이다. 즉, 김경준 외(발간예정)가 중고등학교 청소년 1,386명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서 자아존중감이 29.67점(표준편차 5.68)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는 낮고, 이상균(1999)의 연구에서 일반 중고등학교의 평균 자아존중감이 27.84점(표준편차 4.77)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서는 근소한 차이로 낮은 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점수는 1.30점(표준편차 0.80)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상준(2005)의 연구에서 중고등학교 청소년 1,577명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한 연구에서 우울점수가 0.97점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표 4-8> 자아존중감과 우울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133	18	39	27.68	4.42
우울	124	0.0	3.15	1.30	0.80

한편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표 4-9>를 통해 살펴보면, 청소년 가운데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77.4%이고, 최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청소년이 59.4%, 자살

<표 4-9> 자살위험성

빈도(비율), n=133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종종	자주
나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30 (22.6)	28 (21.1)	27 (20.3)	26 (19.5)	22 (16.5)
최근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54 (40.6)	30 (22.6)	31 (23.3)	12 (9.0)	6 (4.5)
누군가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다.	53 (39.8)	32 (24.1)	27 (20.3)	9 (6.8)	12 (9.0)
내 삶이 자살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62 (46.6)	23 (17.3)	24 (18.0)	13 (9.8)	11 (8.3)
자살하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다.	70 (52.6)	24 (18.0)	17 (12.8)	15 (11.3)	7 (5.3)

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 청소년이 60.2%, 내 삶이 자살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청소년이 53.4%, 자살하려는 시도를 해본 청소년이 47.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경준 외(발간예정)가 1,2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중고등학생 청소년 가운데 자해행위나 자살을 기도한 경험에 있는 청소년이 10.0%로 나타난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청소년들이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수준이 높고, 자살시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정체체성에 대한 고민을 혼자 해결하고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숨기고 살아야 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은 자신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고,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적절한 도움을 받지도 못하면서 소외감을 경험하며, 그러한 가운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불안하고, 짜증도 많이 나고, 괴롭기도 하고, 죽고 싶다는 충동도 많이 느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한테는 이야기를 못하니까 고민도 못 털어놓고, (...) 나중에 언젠가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당연히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나는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저 혼자서 소외감을 느꼈었어요, 제가 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그런

결 생각을 하니까 별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 대학에 붙고 나서 한 번 시도를 해버렸어요, (...) 방향을 하는 거는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아프게 했거든요. (청소년3, 여, 20)

청소년이 이와 같은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도움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성정체성 관련 상담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4-10>을 보면, 성정체성에 관련된 고민으로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표 4-10> 상담서비스 이용경험

구 분		빈도(비율)	전체
성정체성 관련 상담경험	있다	12(17.4)	69 (100.0)
	없다	57(82.6)	
상담경로	담임교사	1(8.3)	12 (100.0)
	상담교사	2(16.7)	
	전문상담기관 방문	4(33.3)	
	인터넷상담	3(25.0)	
	기타	2(16.7)	
상담내용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	3(25.0)	12(100.0)
	커밍아웃과 관련된 고민	3(25.0)	
	성정체성으로 인한 주위와의 갈등	-	
	동성친구와의 관계적 문제	3(25.0)	
	에이즈와 관련한 고민	-	
	동성애인과 관련된 문제	1(8.3)	
	기타	2(16.7)	
상담만족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	2(16.7)	12(100.0)
	조금 도움이 되었다	5(41.7)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2(16.7)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25.0)	

주) 이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수가 적은 것은, 이 문항을 설문이 일정기간 진행된 후에 추가로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있는 청소년은 12명(17.4%)이고, 그런 적이 없는 청소년이 57명(82.6%)이었다. 상담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상담을 한 경로는 담임교사 1명(8.3%), 상담교사 2명(16.7%), 전문상담기관 방문 4명(33.3%), 인터넷 상담 3명(25.0%) 등이었다. 상담내용은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 3명(25.0%), 커밍아웃과 관련된 고민 3명(25.0%), 동성친구와의 관계적 문제 3명(25.0%) 등이었다. 이러한 상담 경험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는 청소년은 7명(58.4%),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청소년이 5명(41.7%)이었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다양한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상담에 대한 욕구가 크게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욕구에 비해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소년 성소수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대가 성소수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상담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도움은 크지 않을 때, 청소년은 더 이상 상담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학교 교사나 상담교사는 다른 일반 사회적 집단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대해 혐오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은 이들에게서 적절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상담기관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상담원이 성정체성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는 보이지는 않더라도 청소년의 성정체성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고민을 공감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인터넷상으로 상담을 올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고민상담 같은 거, 그런 거 한 적은 있었어요?

청소년3(여, 20):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불신했어요.

연구자: 왜 불신했어요?

청소년3: 상담사례연구 이런 거를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요, 상담 내용들이 거의 그런 거죠, '그건 거의 한때입니다' , '그냥 뭐 어른이

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입니다' , 이런 걸 보고 상담해봤자 하나마나겠구나,

9.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반동성애 폭력경험

청소년성소수자의 아웃팅과 반동성애 폭력과 관련된 경험을 조사하였다. <표 4-11>을 보면, 청소년이 성역할과 관련하여 남자인 경우 여자같다고 놀림을 받거나, 여자인 경우 남자같다고 놀림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청소년이 54명(78.2%), 아니라는 청소년이 15명(21.7%)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가운데 아웃팅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1명으로 30.4%이었다. 그리고 아웃팅을 당한 후 학교, 교사, 친구 등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 청소년은 18명으로 51.4%이었다.

<표 4-11> 아웃팅과 놀림경험

구 분		빈도(비율)	전체
놀림경험	그렇다	54(78.3)	69(100.0)a
	아니다	15(21.7)	
아웃팅 경험	있다	41(30.4)	135 (100.0)
	없다	94(69.6)	
아웃팅 후 교사, 친구로부터의 부당처우	그렇다	18(51.4)	25(100.0)
	아니다	17(48.6)	

a, 이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수가 적은 것은, 이 문항을 설문지 일정기간 진행된 후에 추가로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표 4-12>는 청소년이 실제로 반동성애적 폭력피해를 경험한 실태를 보여준다. 각 질문은 청소년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거나 추측하는 사람들로 부터의 언어적, 신체적, 성적인 폭력에 대한 경험에 대한 것이다. 조사 결과, 청소년 가운데 욕설 등 언어적 모욕을 당한 적이 적어도 한번 있는 청소년은 51.5%,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는 청소년이 22.3%, 개인 소지

품이 망가지거나 파괴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9.2%, 누군가에 의해 미행이나 추적을 당한 적이 있는 청소년이 13.8%, 누군가가 자신에게 침을 뱉은 적이 있는 청소년이 13.8%, 누군가가 물건을 집어 던진 적이 있는 청소년이 18.5%, 주먹질이나 발길질 등의 신체적인 구타를 당한 적이 있는 청소년이 13.8%, 성적인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청소년이 10.8%, 무기로 공격을 당한 적이 있는 청소년이 9.2% 등으로 나타났다. 즉 절반 정도의 청소년이 언어적으로 폭력 피해를 경험하며, 10~20%의 청소년이 신체적 또는 성적인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표 4-12> 반동성애 폭력피해 경험

빈도(비율), n=130

	한번도 없다	한번	두 번	세 번 이상
욕설 등의 언어적 모욕을 당한 적이 있다.	63 (48.5)	18 (13.8)	16 (12.3)	33 (25.4)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101 (77.7)	11 (8.5)	10 (7.4)	8 (6.2)
개인 소지품이 망가지거나 파괴된 적이 있다.	105 (80.8)	8 (6.2)	9 (6.9)	8 (6.2)
누군가에 의해 미행이나 추적을 당한 적이 있다.	112 (86.2)	6 (4.6)	8 (6.2)	4 (3.1)
누군가가 나에게 침을 뱉었다.	112 (86.2)	12 (9.2)	4 (3.1)	2 (1.5)
누군가가 물건을 집어던졌다.	106 (81.5)	13 (10.0)	6 (4.6)	5 (3.8)
주먹질이나 발길질 등의 신체적인 구타를 당했다.	112 (86.2)	7 (5.4)	6 (4.6)	5 (3.8)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	116 (89.2)	8 (6.2)	5 (3.8)	1 (0.8)
무기로 공격을 당했다.	118 (90.8)	5 (3.8)	2 (1.5)	5 (3.8)

청소년성소수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외모나 행동에서 일반 청소년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늘

림을 받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이 아웃팅을 당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신이 직접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부터 비난이나 부당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성정체성이 밝혀졌을 경우에 청소년은 일반 사회적인 통념에 의한 혐오적 발언이나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기 쉽다고 보인다.

청소년2(여, 18): 사람들이 이반이다 뭐 그렇게 욕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갔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레즈비언이다 하면 징그럽다 그런 거니까 힘들어도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연구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청소년2: 징그럽다고 하면서요, 여자를 어떻게 사귀냐고,

(중학교 동창이) 소문을 다 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그래서 전 학교에서 제가 이쪽[동성애자]인 걸 알게 되었어요, (...) 그래서 되게 여자애들은 뒷담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친해도 뒤에서 욕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고등학교 2학년때까지 그 소문에 시달려서 진짜 친한 친구들 아니면은 되게 힘들어 그런 친구들 아니면 별로 믿지도 않고 가식적인 성격이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할까, (청소년1, 여, 21)

청소년은 직접적으로 반동성애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다른 친구들의 사례를 보거나 동성애와 관련된 일반적인 혐오적 태도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한다.

제 주변에는 학교에 강제로 알려져서 고생하는 친구들을 몇몇 봤거든요, 그런 애들을 주변에 보니까 무서웠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사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그 사람과 제 친구가 문자를 주고받고 이러면 그거를 친구가 지우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밖에 나간 사이에 그 반에 있는 애들이 전부다 휴대폰을 열어서 전부 공개해 버렸어요,(...)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그 반에 있는 애들이 다 알아버린 것 같다고, 표정을 보니까 정말

받은 정신이 나간 상태인 것 같았어요, (...) 친구가 있으면 전부 이렇게 에워싸서는 (욕을 한 거예요). (청소년3, 여, 20)

청소년은 동성애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혐오적인 발언과 태도를 경험하면서 사회가 동성애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표 4-13>은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청소년들 가운데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긍정적인 편이거나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한 명도 없었다.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대해서 청소년의 36.2%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고, 55.1%가 부정적인 편이라고 응답하여, 전체의 91.3%가 자신을 포함한 동성애자에 대해 사회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4-13>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 인식

구 분		빈도(비율)	전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의 태도 인식	매우 부정적이다	25(36.2)	69 (100.0)
	부정적인 편이다	38(55.1)	
	보통이다	6(8.7)	
	긍정적인 편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주) 이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수가 적은 것은, 이 문항을 설문이 일정기간 진행된 후에 추가로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의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면서, 동성애자로서 자신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인지한다. 청소년은 동성애자에 대한 결혼이 허용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부러워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결혼 그 자체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제도화를 통해 사람들이 동성애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워낙 공고하여 변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대를 버리거나, 이러한 이유로 이민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눈이나 친척들의 압박이라든지, 할아버지의 압박 있잖아요, 저는 벌써 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할아버지가 결혼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고 30대 이전에 분명 선을 보라 할 것 같고, 근데 너무 불안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공부로 또 역시나 내 자신을 막기 위해서 유학을 생각하고 있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어요, (청소년 1, 여, 21)

그런 것[아웃팅]까지 우리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려면 정말 사회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라, 그건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완전 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자기가 잘 관리를 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안들키게, 잘 숨기고 하는 수밖에 없고, (청소년6, 남, 22)

편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렵구요, 이렇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 레즈비언들은 다 이상하다 생각하는 건 아닌데, (...) 너무 나쁘게는 생각 안했으면 좋겠어요, (...) 다른 나라처럼 결혼 그런 건 아니더라도 서로 좋아서 사귀는 거니까, 너무 뒤에서 욕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년2, 여, 18)

10. 청소년 성소수자의 학교적응과 가출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성적과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조사하였다. 먼저 <표 4-14>의 학교성적을 살펴보면, 성적이 상이라고 하는 청소년이 22.4%, 중상 32.1%, 중 20.1%, 중하 20.1%, 하 5.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적이 중상인 경우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 연구대상자에 대한 표집의 주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의 대학생 동아리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표 4-14> 학교성적

단위: 빈도(%)

상	중상	중	중하	하	전체
30 (22.4)	43 (32.1)	27 (20.1)	27 (20.1)	7 (5.2)	134 (100.0)

그런데 청소년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사회적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동성애자인 것이) 원동력이죠, 아직도 제가 공부를 열심히(하는 것이) 무의식적인 그런 게 (있어요), 재밌기도 해요, 저는 공부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살 수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청소년1, 여, 21)

한편 학교나 교사, 수업에 대한 애착과 흥미 등 학교적응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표 4-15>과 같다. 이 항목은 중고등학생만 응답하도록 하여 총 74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를 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은 전체 중 54.8%, 학교생활이 즐겁다는 청소년은 70.6%, 내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는 청소년이 43.9%, 담임선생님이 좋다는 청소년이 45.9%,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지 않은 청소년이 67.5%, 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존경한다는 청소년이 32.4%,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57.5%로 나타났다. 참고로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경준 외(발간예정)의 연구에서는, 학교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청소년이 43.4%,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는 청소년이 47.2%, 학교에 다니는 것이 도움된다는 청소년이 54.3%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학교적응 수준은 일반적인 청소년 집단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사에 대한 존경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반동성애적 발언이나 행동을

<표 4-15> 학교적응

빈도(비율), n=74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교를 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7 (9.6)	33 (45.2)	11 (15.1)	22 (30.1)
학교생활이 즐겁다.	3 (4.1)	19 (25.7)	29 (39.5)	23 (31.1)
내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11 (15.1)	30 (41.1)	21 (28.8)	11 (15.1)
담임선생님이 좋다.	25 (33.8)	15 (20.3)	24 (32.4)	10 (13.5)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다.	22 (29.7)	28 (37.8)	10 (13.5)	14 (18.9)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존경한다.	23 (31.1)	27 (36.5)	16 (21.6)	8 (10.8)
수업시간에 나는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한다.	10 (13.7)	21 (28.8)	29 (39.7)	13 (17.8)

보는 경우가 있다. 학교교사 가운데에는 청소년이 성소수자라는 것만으로 징계를 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가 발견된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이러한 교사의 물이해적인 태도를 인식하고 거리감을 갖게 된다.

수업시간 중에 갑자기 상담실에 소속된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와서 제 친구를 불러서요, 교무실이라든가 그런데 그 아이를 세워 놓고 다시는 (동성애를) 하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청소년3, 여, 20)

무서워하는 애들이, 사실, 모르는 애들이나 싫어하는 애들 그런 경우가, 주변에 동성애자인 친구를 만나본적이 있냐하면 없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 이미지가 있을 테니까, 그 이미지로 동성애자를 규정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선생님들도 그렇게 혐오적인, 긍정적일 수가 없는 발언을 하고, 또 애들 자체도 자기가

동성애자가 아닌 이상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는 말이죠, 그런 문화라든지, 그러니까 더욱 더 괴리는 커져가는 거죠. (청소년 3, 여, 20)

청소년은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것으로 인해 학교에서 또래관계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성적체성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친구 관계에서 거리를 두거나, 혹은 성적체성과 관련하여 놀림이나 폭력을 당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성적체성으로 인한 학교적응의 어려움이 결국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게 되는 이유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늘 어떤 새로운 단체에 갈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여자같다고 놀릴까봐, 특히 그 때는 학생이니까 말만 하면 애들이 년 좀 여자같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 게 싫어서 옆에 애들한테 신경질 부리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네들은 이유 없이 저한테 신경질을 받으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 은따 아세요? 은따 같은, 친구들 별로 없고, 애들하고 말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괴롭히거나 전부 다 저를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지냈었어요. (청소년 6, 남, 22)

애들이 막 동성애자다 레즈비언이다 말해도 그냥 선생님 생각해서 2학년은 어렵게 좀 마쳤는데 3학년 때는 좀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약간 주위에서 막 레즈비언이다 그러고, 막 욕하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청소년 2, 여, 18)

<표 4-16>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가출관련 경험을 보여준다. 청소년 가운데 가출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70명(52.2%)이었고, 실제로 가출을 했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0명(29.6%)이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 중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청소년위원회(2006)의 연구에서 9.9%로 나타나고 김정준(발간예정)의 연구에서 7%로 나타나는 등, 일반적으로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내외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

치이다. 청소년이 가출을 했던 이유가 성정체성과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0명만이 응답하였는데, 그렇다는 청소년이 50.0%, 아니라는 청소년이 50.0%로 나타났다.

<표 4-16> 가출

구 분		빈도(비율)	전체
가출고민여부	그렇다	70(52.2)	134 (100.0)
	아니다	64(47.8)	
가출경험	있다	40(29.6)	135 (100.0)
	없다	95(70.4)	
성정체성으로 인한 가출여부	그렇다	5(50.0)	10 (100.0)
	아니다	5(50.0)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가정에서 수용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청소년은 가정을 떠나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된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비난을 하는 경우에 더욱 가출 충동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성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경우라도 청소년들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리감을 느끼고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제 내가 동성애자니까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고 이제 가족이랑 약간 동떨어진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거리감, 거리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가족이랑, 가족이 옆에 있어도 애정도 들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족이라는 틀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다는 생각만 하고, 이걸 빨리 깨고 싶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청소년1, 여, 21)

저희 외할머니도 그걸[제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게 되셨어요. (...) 외할머니가 '저 드러운 년 여자가 뭐가 좋다고, 저 드러운 년, 나가' 그렇게

말을 하시고 엄마는 원래 전에는 한번도 그런 말 안하셨어요, 저한테 좀
욕을 (하셨어요), (...) 엄마가 그걸 알고 좀 있다가 '걸레 같은 년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으로도 (집을 나왔어요,) (청소년
2, 여, 18)

V. 성별에 따른 생활실태 분석

1. 남녀 청소년 동성애자의 일반적 특성
2. 남녀 청소년 동성애자의 생활실태 비교

V. 성별에 따른 생활실태 분석

1. 남녀 청소년 동성애자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해 살펴본 생활실태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가 대부분 동성애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자 집단 내에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표 5-1>과 같이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남녀 청소년에 따라 살펴보면, 청소년 동성애자 총 126명 가운데 남자는 59(46.8%), 여자는 67(53.2%)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남자 청소년은 16~18세 39.0%, 19~23세 61.0%이고 여자 청소년은 13~15세 17.9%, 16~18세 52.2%, 19~23세 29.9%이었다. 학력별로는 남자 청소년은 고등학교 50.8%, 대학교 49.2%이었고, 여자 청소년은 중학교 25.8%, 고등학교 45.5%, 대학교 28.8% 등이었다. 즉, 본 연구대상자 가운데 남자 청소년의 경우 연령이 조금 더 높고 학력이 높은 집단에 분포되어 있다.

<표 5-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남자	여자	전체	χ ² 값
연령별	13-15세	-	12(17.9)	12(9.5)	18.621**
	16-18세	23(39.0)	35(52.2)	58(46.0)	
	19-23세	36(61.0)	20(29.9)	56(44.4)	
	전체	59(100.0)	67(100.0)	126(100.0)	
학력별	중학교	-	17(25.8)	17(13.6)	18.750***
	고등학교	30(50.8)	30(45.5)	60(48.0)	
	대학교이상	29(49.2)	19(28.8)	48(38.4)	
	전체	59(100.0)	66(52.8)	125(100.0)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대학동아리를 통해 표집된 수가 더 많았고 상대적으로 중학생 가운데에서는 표집된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표집상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우선 현실적으로 표집과정에서 여자 청소년에 비해 십대 남자 청소년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십대 여자 청소년 동성애자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 청소년 동성애자 밀집지역, 청소년쉼터 등에서 비교적 쉽게 만나고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것에 비해, 남자 청소년은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반면 대학동아리의 경우는 오히려 남자 청소년의 참여가 많아, 여자 청소년에 대한 표집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이와 같이 표집상에서 나타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성적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겪는 연령시기가 다른 이유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욱 깊이있게 관찰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결과가 남녀 집단 간의 차이가 이와 같은 표집과정에서 나타난 차이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종교, 부모의 결혼상태, 부의 학력, 모의 학력, 가족의 경제적 수준 등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남녀 청소년 동성애자의 생활실태 비교

먼저 성적체성을 처음 인지한 연령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적체성 인지시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5-2>와 같이 여자 청소년은 주변 동성친구나 선생님을 좋아하거나(73.1%) 주변 동성친구나 선후배가 자신을 좋아한 것(17.9%)이 계기가 된 경우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많았고, 남자 청소년은 동성 연예인에게 관심이 생기거나(10.2%), 동성으로부터 성폭력 경험을 당한 이후(5.1%)인 경우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많았다.

성적체성 수용과 관련해서는 성적체성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 성적체성에 대한 자긍심(프라이드), 성적체성이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에

<표 5-2> 성별에 따른 성적체성 인지계기

단위: 빈도(%)

	남자	여자	χ^2 값
주변 동성친구나 선생님을 좋아하면서	38(64.4)	49(73.1)	12.928*
주변 동성친구나 선후배가 나를 좋아하면서	5(8.5)	12(17.9)	
동성 연예인에게 관심이 생기면서	6(10.2)	-	
동성에 관련 문화를 접하면서	2(3.4)	2(3.0)	
동성으로부터 성폭력 경험을 당한 이후	3(5.1)	-	
기타	5(8.5)	4(6.0)	
전체	59(100.0)	67(100.0)	

서 모두 남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적체성에 대한 드러내기에 대해서는, <표 5-3>과 같이 커밍아웃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경우가 남자 청소년은 16.9%인 것에 비해 여자 청소년은 1.5%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해 누군가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또, 상담가에게 커밍아웃을 한 경우는 남자 청소년은 13.6%이었으나 여자 청소년은 전혀 없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상담가에게 정체성을 밝히는 경우가 적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척, 동성애자 친구, 이성애자 친구, 교사 등에 대해 커밍아웃을 한 청소년의 비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이상의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한 후에 상대의 반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3> 성별에 따른 커밍아웃

단위: 빈도(%)

	구분	그렇다	아니다	전체	χ^2 값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남자	10(16.9)	49(83.1)	59(100.0)	9.407**
	여자	1(1.5)	66(98.5)	67(100.0)	
상담가	남자	8(13.6)	51(86.4)	59(100.0)	9.701**
	여자	-	67(100.0)	67(100.0)	

청소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서는, 청소년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 성별에 따라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의 동성애적 사회화에 대해서는, <표 5-4>와 같이 남녀 청소년 사이에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접한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84.7%)과 극장이나 화장실(5.1%)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많았고, 신문이나 잡지(1.7%)와 이반업소(3.4%)는 여자 청소년은 응답이 없는 것에 비해 남자 청소년 사이에서 응답이 있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친구(34.8%)를 통해 알았다는 응답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훨씬 많았다.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유무와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는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4> 성별에 따른 동성애자 커뮤니티 접한 경로
단위: 빈도(%)

구 분	인터넷	친구	신문이나 잡지	이반업소	극장이나 화장실	전체	χ^2 값
남자	50(84.7)	2(5.1)	1(1.7)	2(3.4)	3(5.1)	59(100.0)	19.750**
여자	42(63.6)	23(34.8)	-	-	1(1.5)	66(100.0)	

동성애자 친구의 수는 <표 5-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여자 청소년의 경우 평균 42.5명(표준편차 73.0)인 것에 비해, 남자 청소년의 경우 평균 16.5명(표준편차 73.0)으로 적었다.

<표 5-5> 성별에 따른 동성애자 친구 수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남자	59	16.9	19.7	2.607*
여자	66	42.5	73.0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과 사랑에 관해서는, 동성과의 교제여부에 대한 교차분석과 교제한 동성의 수에 대한 t-검정에서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동성과의 성관계 경험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과 성 관계를 처음 경험한 연령에 대한 t-검정에서도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건강에 대해서는 콘돔 사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6>과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19.6%이었지만 여자 청소년은 72.5%이었다. 남자청소년의 콘돔사용율이 높은 것은, 남자 동성애자의 경우 동성과의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콘돔사용이 더욱 강조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반면 여자청소년의 콘돔사용율이 낮은 것은, 여자 동성애자의 경우 동성과의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에 대한 위험이 낮음을 알고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콘돔을 남성용으로 인식하여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표 5-6> 성별에 따른 콘돔사용

단위: 빈도(%)

구 분	항상한다	대부분한다	가끔한다	전혀 하지 않는다	전체	χ^2 값
남자	12(26.1)	15(32.6)	10(21.7)	9(19.6)	46(100.0)	38.628***
여자	1(2.0)	1(2.0)	12(23.5)	37(72.5)	51(100.0)	

에이즈 검사여부에서도 <표 5-7>과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검사한 적이 있는 청소년이 16.9%로 여자 청소년이 4.5%인 것에 비해 많았다. 한편,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경험의 유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7> 성별에 따른 에이즈검사 여부

단위: 빈도(%)

구 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남자	10(16.9)	49(83.1)	59(100.0)	5.274*
여자	3(4.5)	64(95.5)	67(100.0)	

청소년 성소수자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8>과 같이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평균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과 자살위험성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사회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성정체성과 관련된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 상담하게 된 경로, 상담내용, 상담이 도움이 되었는지 등에서 남녀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8>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남자	59	28.4	4.7	1.989*
여자	65	26.8	4.0	

청소년 동성애자의 반동성에 폭력경험에 대해서는, 아웃팅 경험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표 5-9>와 같이 남자 청소년 가운데 아웃팅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6.9%인 것에 비해, 여자 청소년은 38.8%로 여자 청소년이 아웃팅의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앞의 분석결과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커밍아웃을 한 비율이 높고 동성애자 친구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면서 아웃팅을 당할 기회도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 외에 아웃팅으로 인한 부당처우 경험 여부, 남자같거나 여자같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반동성에 폭력에 대한 총점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 태도에 대한 인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5-9> 성별에 따른 아웃팅 경험

단위: 빈도(%)

구 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남자	10(16.9)	49(83.1)	59(100.0)	7.344**
여자	26(38.8)	41(61.2)	67(100.0)	

청소년 성소수자의 학교성적에 대해서는, <표 5-10>과 같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상과 중상이 44.8%인데 비해 남자 청소년은 69.0%로 남자 청소년의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표집과정에서 응답자 중 남자 청소년이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모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10> 성별에 따른 학교성적

단위: 빈도(%)

구 분	상	중상	중	중하	하	전체	χ^2 값
남자	13(22.4)	27(46.6)	8(13.8)	8(13.8)	2(3.4)	58(100.0)	10.412*
여자	16(23.9)	14(20.9)	17(25.4)	16(23.9)	4(6.0)	67(100.0)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적응에 대해서는 <표 5-11>과 같이 남자청소년 집단의 학교적응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남자청소년의 적응수준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가출고민과 가출경험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11>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남자	23	62.2	9.1	2.037*
여자	42	56.5	11.6	

VI. 결 론

1. 요약
2. 정책제언
3. 후속연구 제언

VI. 결 론

1. 요약

본 연구는 동성애자 126명과 양성애자 9명을 포함한 청소년 성소수자 135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동성애자 6명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에서 살펴본 영역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정체성 인지, 성정체성 수용, 드러내기, 사회적 관계, 사회화, 성과 사랑, 건강, 심리사회적 건강과 상담경험, 반동성애 폭력경험, 학교 적응과 가출 등이었다.

먼저 성정체성 인지에 관해서 살펴보면, 청소년이 성정체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평균 연령은 13.8세이었고, 인지연령이 15세 이하인 경우가 78.5%로 나타나, 대부분이 청소년기 초기에 성정체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정체성을 인지하게 된 계기는 주변 동성친구나 선생님을 좋아하였던 것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동성연예인에 관심이 생기거나 동성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 계기가 된 경우도 소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계기를 통해 자신이 동성애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터넷이나 책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탐색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정체성 수용에 대해 살펴보면, 청소년 가운데 68.9%는 성정체성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고 있었고, 54.8%는 성정체성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60.7%는 성정체성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인지하는 초기단계에 자신이 다른 청소년과 다르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정체성이 사회의 요구와 다른 것을 인지하면서 성정체성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정체성 드러내기에 대해 살펴보면, 적어도 한 명 이상에게 커밍아웃

웃을 한 청소년은 전체 중 90.4%이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커밍아웃을 한 청소년은 16~20%정도이고, 교사나 상담가에게는 4~6%, 이성애자 친구에게는 66.7%, 동성애자 친구에게는 85.2% 등으로 나타나, 부모나 교사를 비롯한 성인에게 성정체성을 알리는 일은 매우 적고 주로 친구들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동성애자 가운데에서는 커밍아웃을 한 여자청소년이 98.5%로 거의 다인 것에 비해, 남자청소년은 83.1%로 조금 적었다. 커밍아웃을 한 이후의 반응은 친구의 경우는 대부분 수용적이거나 보통의 수준으로 반응하지만, 부모, 교사, 상담가 등은 절반 정도가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성소수자 청소년의 70% 이상이 도움이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 형제, 친구 등으로부터의 전반적인 지지수준은 낮은 편이다. 청소년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지 못하여 솔직하고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거리감과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소수자로서의 사회화에 대해 살펴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 가운데 74.6%는 인터넷을 통해서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접하게 되었고, 88.1%가 동성애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83.9%가 오프라인 모임에 적어도 한 번 참여하였다. 청소년들이 형성하고 있는 동성애자 친구 수는 평균 28.8명으로, 청소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커밍아웃하지 못하는 대신 다른 동성애자들을 찾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동성애자 친구수의 평균이 42.5명으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평균 16.9명)에 비해 친구 간 교제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청소년들은 동일한 경험을 나누며 위안을 얻지만, 모임에서 아웃팅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여섯째, 성과 사랑에 대해 살펴보면, 청소년 중 동성과 교제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83.1%이었고, 교제기간은 6개월 미만이 61.9%이었다. 성관계 경험에 있는 청소년은 73.9%로 성관계를 처음으로 한 시기의 평균연령은 17.2세이고 15세 이하가 24.6%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동성과의 교제

경험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하는 경우가 있고, 성소수자 청소년 가운데 교제와 성관계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일곱째, 청소년 성소수자의 건강을 살펴보면, 청소년 가운데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은 47.4%이고, 에이즈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9.6%이었다. 콘돔사용비율은 남녀 청소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 남자청소년 가운데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은 19.6%이지만 여자청소년의 경우 72.5%이었다. 에이즈 검사를 받은 경험도 남자청소년이 많았다. 음주률은 82.2%, 흡연률은 51.9%로 나타나, 일반 중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높았다.

여덟째, 심리사회적 건강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수준이 높았으며, 자살시도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7.4%로 높게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남자 청소년 성소수자에 비해 더 낮았다. 청소년들은 성적체성에 대한 고민을 숨기고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소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청소년 가운데 성적체성 관련하여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7.4%이었고, 이 가운데 전문상담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상담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은 주로 성적체성에 대한 혼란, 커밍아웃과 관련된 고민, 동성친구와의 관계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이러한 상담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는 청소년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청소년은 상담원에게 상담을 요청했을 때에도 상담원이 자신의 성적체성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여 공감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험이 상담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반동성애 폭력경험에 관해 살펴보면, 남자(여자)같다고 놀림은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8.3%, 아웃팅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0.4%이었고, 아웃팅 후 교사나 친구로부터 부당처우를 받은 청소년이 51.4%로 나타났다. 아웃팅의 경험은 여자 청소년 가운데에서 38.8%로, 남자 청소년(16.9%)에 비해 더 많았다. 청소년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성적체성과 관련하여 언어적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22.3%가 위협을 당하고, 13.8%가 신체적 구타를 당한 적이 있었다. 성적인 폭행을 당한 청소년도 10.8%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특히 아웃팅을 당할 때 비난과 욕설을 듣고 혐오적 태도를 겪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가운데 91.3%가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며, 우리 사회 속에서 동성애자로서 살아가기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과 가출에 대해서는, 본 연구참여자의 성적은 중상인 경우가 많았고,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로 살펴본 학교적응수준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교사에 대한 존경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학교 교사 가운데 성소수자에 대한 몰이해로 반동성애적 발언이나 행동을 볼 때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가운데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9.6%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가족이 수용하지 않을 때 가출 충동을 느끼는 것이 발견되었다.

2. 정책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1) 중고등학교에서 성정체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성정체성을 인지하고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시기는 평균 13.8세로서 대부분 15세 이하에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성소수자 청소년은 초기 청소년기부터 자신이 다른 청소년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며 자기 자신을 탐구해가기 시작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청소년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발달의 한 과정으로, 사회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정체감을 형성하고 발달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정체성의 발달에 대해서 가족이나 학교나 사회 등 그 어느 곳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매우 개인적인 수준에서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탐색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잘못된 정보를 얻거나, 무지한 가운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정체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동성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등 성정체성에 대한 과업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식적이고 개방적인 상태에서 성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그 시기는 15세 이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성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일반학교에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재홍 등(2003)의 연구에서 동성애 성향에 대해 고민한 청소년이 11.0%이었고, 이영식 등(2005)의 연구에서 동성애 성향이 있는 청소년이 12.7%로 나타났고, 김경준 외(발간예정)의 연구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성소수자가 9.4%로 나타났던 것을 볼 때, 중고등학교 청소년 가운데 10%는 성정체성에 관련하여 심각하게 고민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성정체성의 문제는 극히 소수의 청소년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의 발달의 주요한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둘째, 성정체성에 대한 교육은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이성애를 포함한 성적인 발달의 측면에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청소년 성소수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성소수자에 대한 일반의 몰이해로 인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학교에서는 또래와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또래와 교사가 반동성애적인 혐오와 폭력을 보이는 경우, 청소년 성소수자는 더욱 자신의 고민을 내어놓지 못하고 고립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성정체성에 대한 교육은 성정체성 형성이 성적 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이성애든 동성애든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점검해보고, 타인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기의 고민, 그런 사춘기하면서 다른 파트로 동성애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 요새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거나 좀 가르쳐주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렇게 (동성애를) 막거나 그런 식으로는 가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정체성을 확립하게 알려주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1, 여, 21)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 자기 선생님한테 그런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면 정말 쉽게 (자기를) 긍정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청소년 5, 남, 23)

선생님들이 일단 교육을 해줘야 친구들도 그걸 아 내 주위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애는 나랑 정말 친한 친구니까 이제 함부로 동성애자에 대해서 욕을 하면 안되겠고 그렇겠구나 해서 선생님들에게 그런 교육을 받으면 훨씬 더 애들이 잘 동성애자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청소년 1, 여, 21)

성정체성에 관한 교육은 청소년을 위해 시행되는 성교육의 한 부분으로 실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성소수자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이슈인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 커밍아웃, 동성교제, 성관계, 에이즈와 콘돔사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우선, 미국에선 성교육 할 때 동성애에 대해서 7분간인가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동성애가] 안 좋은 쪽이 아니고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사람들[동성애자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 있으면, 거기까지만 해도 훨씬 좋을 거 같아요, (청소년 5, 남, 23)

이반 사람들이요, 성관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좀 위해서 성교육 같은 거 (필요해요) (청소년 2, 여, 18)

2) 청소년 성소수자를 알고 이해하도록 부모와 교사를 교육해야 한다.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의미 있는 성인집단이다.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쌓고, 사회성을 향상해야 하는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한 고민을 주요한 성인에게 밝히지 못하거나, 밝힌다 해도 심각하게 거부를 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성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는 또래와 더욱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성인으로부터는 독립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에 특히 성적체성으로 인해 성인의 대화를 단절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학교와 집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문제가 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이 성인에게 다가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성인들이 이성애가 아닌 성적 지향에 대해 부정적이고 혐오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성인들의 이성애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청소년은 성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수용되기를 바라면서도 쉽게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소수자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먼저 부모와 교사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학교교사는 청소년을 만나는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성인으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과 대처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교사에 대한 커밍아웃의 비율이 4.4%로 적을 뿐만 아니라, 커밍아웃을 했을 때의 반응이 거부적인 경우가 절반 이상 나타났다는 것은 크게 우려할만한 일이다. 또한 학교에 있는 상담교사조차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적인 태도를 갖거나 그들의 성적체성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나 교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소수자 청소년이 성인과 소통을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염려된다.

선생님이랑 부모님이 제일 큰 문제란 말이에요, 아직도, 근데 선생님들은 아직 동성애자라는 거에 교육을 많이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은

그거[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많은 문화를 접해있고 (...) 그거[동성애]에 대해서 교육계 자체가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슈화되지도 않고, 전혀 그런 걸 보지도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오히려 청소년들에게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자기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청소년 1, 여, 21)

교사가 이러한 한계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교사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필요하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사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발달과정으로서 성정체성의 발달에 대한 이론과 함께 성소수자 청소년이 가지는 주요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청소년 성소수자는 학교에서 성정체성으로 인해 모욕이나 놀림 등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사는 청소년을 이러한 폭력피해로부터 보호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이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을 교사가 인지하여, 청소년이 심각하게 우울한 태도를 보이거나 부적응적 행동을 보일 때 성정체성이 원인인지 관찰하고 감지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감성을 갖도록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에 대한 교육은 이와 같이 훈련된 교사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저희 어머니는 (동성애가) 병 아니냐, 우리 아버지는 정신과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를 말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교육을, 부모님에게도 말하고 선생님에게도 직접 교육을 다 해주고, 선생님들이 일단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선생님들이 부모님을 그래도 설득할 수가 있잖아요 (청소년 1)

3) 청소년상담기관의 상담가가 청소년 성소수자를 상담할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청소년의 자존감이 낮고, 우울수준과 자살위험성이 높으며, 가출, 흡연, 음주 등의 위험성도 높은 경향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청소년 성소수자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상담자의 전문적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청소년 가운데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7.4%로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긴급하게 해소하여 주는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소수자는 상담기관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은 상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일반적인 성인과 마찬가지로 상담자에 대해 불신하고 쉽게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이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자에게 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상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적인 태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저는 사실 상담을 이용을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상담선생님들]한테 가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상담을 하는데 불신감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러려면 제대로 된 상담을 해야죠, (...) 상담을 하려면 그 문제에 대해선 (상담선생님이) 알고 계셔야죠,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뭐 한 때인 거, 고칠 수 있는 대상 이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청소년 3, 여, 20)

상담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근데 그 상담이 동성애자들만 오라는 상담이 아니고, 그냥 보통 상담인데 그런[동성애자의] 면들을 애가 긍정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 같지, 자기가 '동성애자인데 어떻게 해' (걱정) 하면서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그런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모든 나쁜 이미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어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찾아가는 애를 (이성애자로) 바꿔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청소년 5, 남, 23)

따라서 청소년이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에 대해 적절히 도움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상담기관의 상담자가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야 한다. 우선, 상담자가 성소수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즉 호모포비아(homophobia)와 이성애중심적인(heterocentric)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적 지향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성정체성의 발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셋째, 성소수자 청소년이 당면하는 주요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도움요청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상담기술을 획득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결국 상담자는 성정체성의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청소년이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을 자연스러운 발달의 과정 안에서 이해하고, 청소년이 당면한 고민에 공감하고 동참하며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훈련의 과정은 상담자의 기본적인 자질인 수용, 비심판적인 태도,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의 윤리적 원칙 등을 다시 한번 적용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특히 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와 각종 청소년관련 기관과 시설의 상담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마련한 청소년전화 1388과 같이 청소년들이 익명성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에서 활동하는 상담자들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전화를 통하여 충분히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개별적인 상담자뿐만이 아니라 상담기관 전체에 대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개별 상담자를 판단할 수 없을 때, 해당 상담기관이 성소수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를 관찰함으로써 상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기관에서는 기관이 동성애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 등에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함을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 이전에 ‘내가 상담을 해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도록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3, 여, 20)

4) 청소년이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공식 기관을 통하여 지식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회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변화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청소년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며 숨어서 지낼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 혼자서라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습득의 기회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주로 인터넷과 책을 통하여 동성애 등 성소수자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유되고 있는 성소수자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현재 마련된 인터넷 정보와 서적은 매우 수량이 적고 제한적인 데다가 대부분 성인 중심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둘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련된 성관련 지침서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문제행동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어, 역시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된다. 셋째, 지금까지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충분한 검증 없이 경험적으로 유포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별해내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다. 성소수자 단체가 만든 인터넷사이트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이들 단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정체성에 관한 지식을 정리하여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며, 이 때 이러한 내용을 개발하는 데 학계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교육부나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같은 공식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지식을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청소년이 커밍아웃의 위험을 느끼지 않고도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매체는 인터넷이므로,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독립된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청소년의 성정체성에 대해 안내하는 간단한 소책자를 마련하여 각급 학

교와 상담실에 비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제 기억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에 관련된 책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걸 읽었었는데 ‘동성애자’가 귀퉁이에 있는데 읽어보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세요’ 그런 내용이라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저 자신은 ‘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라고 넘기면 되지만, 그걸 고민하는 사람은 그런 걸 보고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 3, 여 20)

근데 청소년 대상의 (동성애에 관한) 책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못하고 나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책을 조금 읽어 본 다던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침서나 그런 책이 있었으면 덜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 (책이 있다면) 일단 너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접 읽어봤을 때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요소들하고, 학교에서 겪는 문제라든가, 그런 내용들이면 좋겠어요. (청소년 3, 여, 20)

5)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사회서비스기관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체성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우, 동성애자 친구수의 규모가 여자 청소년은 40여명, 남자 청소년은 15명 정도로 상당히 크고, 커뮤니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들은 동성애자 친구에게 대부분 커밍아웃을 한 경험이 있으며, 동성애자 친구들은 청소년에게 수용적으로 반응하고 지지와 안도감을 주는 주요한 지지체계로 밝혀졌다. 청소년은 이러한 커뮤니티를 통해 동성애자로서의 공감적 지지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성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모델을 찾고 배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동성애자) 모델을 한번이라도 만나 봤으면 그리고 그 모델이 이상한 모델이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내가 직접 보는 사람으로서 만났다면, 저는 동성애자로 인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게 되게 중요했던 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했어요. 그런 모델이 없다고 느꼈어요. (...) 만약에 분명히 그런 모델이 있었으면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고, 훨씬 편하게 받아들이고, 더 쉽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그랬을 거 같아요. (청소년 5, 남, 23)

이와 같이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청소년의 인생에서 지지와 역할모델을 제공하는 주요한 통로로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커뮤니티 역시 청소년이 접근할 때에는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성소수자 모임 내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접하면서, 커뮤니티도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한다. 외국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성인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술집, 공원 등 공공장소에 들리면서 술 취한 게이 등을 만나게 되어 성적 또는 정서적으로 이용당하는 경우가 있다(Gonsiorek, 1988).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 가운데 동성으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와 같이 성소수자가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각종 모임이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청소년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아웃팅의 협박을 받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등의 범죄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피해를 당하고도 알리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지지와 역할모델 제공자로서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청소년이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기관을 마련하여,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양성화하고, 역할모델을 할 수 있는 성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동아리와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십대 청소년의 경우에는 소속된 커뮤니티가 친목단체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전부이고, 특히 성인으로부터의 피해를 우려하여 오히려 성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자와 실무자는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교육학, 상담학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한 전공자이면서 성소수자의 보호와 권익옹호에 대한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가에 의해 정기적으로 감독을 받는 자격을 갖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학교나 캠프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대부분 서울에서 한 번 이뤄지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지역단위로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아주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도 아마 잘 만나갈 거예요, 왜냐 하면 아직 어리기도 하고, 아웃팅 생각[걱정]도 있고, 한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 애들은 용기가 엄청 필요한 일이잖아요, (...) 믿음직한 단체에서, 카페 정보 말고 믿음직한 단체에서 모아서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면 좀더 자연스럽게 할[모일] 수 있지 않을까요? (...)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친구들을 더 원하니까 친구가 서로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같고, 친구 만드는 게 힘든데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있고 오프라인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6, 남, 22)

미국의 경우, 청소년 성소수자 옹호단체, 드롭인 센터(drop-in center), 동성애자 학교 등과 같은 형태로 서비스 기관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 등이 청소년에 대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성교육, 교사교육, 옹호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Owens, 1998). 이러한 서비스 공간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쉴 수 있는 휴식과 놀이공간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갈 곳을 찾기 힘든 청소년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클 것이다.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느낀 건 대학생이 되면 일단 클럽에 갈 수 있고 그

러면서 레즈비언을 만날 수 있는데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카페 같은 데 (...) 가입을 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한강 다리에 그런 데서 술 마시고 놀고 많이 그렇게 하면서 모이고, 진짜 놀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청소년 1, 여, 21)

어디를 가면은 일반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반만의 그런 시설 있잖아요, (...) 카페 같이, 뭐 그냥 카페식으로 해서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2, 여, 18)

지금도 걱정이 되는 게, 지금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고민을, 그런 친구들이 많이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좀 많이 소통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 3, 여, 20)

6)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향상을 위해 사회적 태도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커밍아웃을 주저하고, 아웃팅과 반동성애적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것,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울과 자살충동을 경험하는 것 등의 상황은 모두, 사회가 이성애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사랑과 생활방식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한 비난과 차별을 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91.3%는 사회가 동성애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은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를 동성애자인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상을 획득하거나 사회적 무기력을 획득하기 쉽다(Shibutani, 1961; Garfinkel, 1956).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언급처럼,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로서의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평생을 숨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외국으로 떠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드러난다. 이와 같은 청소년이 무기력을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거나 국가를 떠나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은 모두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이러한 청소년의 부적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학교를 중단하거나 가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실업이나 빈곤으로 이어져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접근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 전체의 태도와 분위기를 바꾸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사회가 성소수자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다른 사회 구성원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생활하며, 피해나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때, 청소년 성소수자도 소속감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희망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찾으며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동성애자들은) 숨어서 서로 사귀고 그러는 거잖아요, 숨어서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다 누가 좋아서, 좋아하고 싫어서가 아니고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사귀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레즈비언이 아니라고 사람한테 욕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숨어서 애정표현을 해야 되고, (...) 그러니까 평소 사람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청소년 2, 여, 18)

동성애자의 결혼이나 법적 파트너십 인정, 동성애자 부부의 입양 인정, 동성애자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권 인정 등과 같은 제도적, 법적인 장치는 너무나 요원한 기대라고 느끼면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었다. 미시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지 않고 평범하게 바라보아 주는 것과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성애중심적인 대화와 행동을 바꾸는 것도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주요한 변화에 포함되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 연령, 장애 등과 함께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언은 모두 우리사회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시정되도록 권고되는 것들이다(김화숙 외, 2002).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성소수자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이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등과 같이 동성간 결혼 또는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제도적 변화를 실현해나감으로써, 청소년이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좀 욕심인거 같기도 한데, 사람들이 너무 이성애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 다른 사람 모두 이성애자라고 가정하고 여자한테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고, 또 장난으로 남자한테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고, '아니 없어' 그러면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까' 이렇게 농담식으로 (...)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웃고 넘기면 되는데, 계속 기분이 나빠지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불편하고, 사회적으로는 뭐 많겠죠, 결혼 같은 것도 그렇고, 가정을 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애를 되게 가지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애를 갖는 거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청소년 5, 남, 23)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 상속 같은 것도 힘들고, 그런 걸 보면 파트너십 그런 걸로 포장을 해서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아니어도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파트너다 이렇게 법적으로 신청을 하면 그게 통과가 되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죽으면 이 사람에게 상속이 다 간다던가, (...) 제가 이민을 생각하는 이유가 (...) 저는 입양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여자 둘이서 그렇게 입양을 한다면은 남들의 시선이야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은데 (...) 법이 좀 되었으면 이 한국에서 같이 애인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법으로 안 되니까, (청소년 1, 여, 21)

연구자: 만약에 사회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청소년4(여, 16): 여자랑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 거, 그런게 있었음 좋겠어요, 저희 나라에도, 그러면 사람들이 '여자랑 여자랑 어떻게 결혼해' 이랬는데 여자랑 여자랑 결혼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여자랑 여자랑은 결혼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3.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최초의 광범위한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다음을 고려하기를 제안한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성소수자가 포함된 연구를 제안한다.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포함될수록 더욱 풍부한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며, 성소수자 사이에서의 차이점들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성소수자는 하나의 집단이 아니며 특성 또한 모두 다르다. 따라서 성소수자 집단 각각의 세분화된 연구와 성소수자 집단 전체의 통합적 연구 모두가 필요하다.

둘째, 더욱 광범위한 표본수의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특성상 확률 표집을 실시할 수는 없겠지만, 표본수가 늘어날수록 연구의 정확도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립되어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제안한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성적체성의 형성, 즉 성적체성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기 때문에 횡단적 연구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한다면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 성소수자와 일반 청소년 사이의 비교 연구를 제안한다. 이것은 표집방법이 통일된 상태에서 동시조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집단 간 단순비교라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청소년 성소수자와 일반 청소년 사이의 차이를 좀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간 비교 연구를 비롯해 더욱 다양한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들 외에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많은 문제와 욕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강점과 자원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방면의 연구를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이해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병철, 하경희(2005).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2(3). 267-289
- 강희선(2001). 한국대학생의 콘돔사용 설명 모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석만(1999). HIV 감염자를 포함한 국내 동성애자의 심리성적 행동 특성. 국내 남성 동성애자의 심리성적 행동특성과 HIV감염. 서울대학교
- 김경준, 정익중, 김지혜, 류명화(발간예정).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성아(2000). 일부 고등학생들의 에이즈 교육을 통한 지식과 태도 변화.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4(2). 216-228
- 김영란(2003). ‘상담을 통해 본 청소년의 동성애 실태 및 태도’. 동성애,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재환, 김광일(1984).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한국판 표준화연구 III. 정신건강연구. 2. 278-291.
- 김준호(1998). 한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피해와 가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1). 109-131. 서울: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 김지혜(2002). 미혼모를 위한 생태체계적 지지집단 개입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화숙, 배용호, 백미순, 이성진, 이숙진, 정경아, 정금나, 조순경, 한승희(200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을 위한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연구모임
- 박민선(1996). 1990년대 한국 레즈비언 담론의 분석과 전망-‘끼리끼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애리(2004). 젊은 층과 여성의 HIV/AIDS 문제와 예방교육·홍보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 미출판자료
- 손애리, 권동식, 최찬호(2003). 에이즈 예방 청소년 동료지도자 프로그램 평가 연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3). 281-299
- 손애리, 한희정(2002). Adolescents' sexuality and school-based sex education in South Korea.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4). 45-60

- 송우엽(2003). 청소년 운동선수의 폭력실태 및 괴롭힘에 대한 심리적 반응 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1). 109-125
- 오승환(2000). 소년소녀가장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일반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9. 99-126.
- 왕신수(2004). 한국대학생들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가현(1997). 동성애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경진(2003). 청소년 자살의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 이경진(2003). 청소년 자살의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준(2005). 인터넷 섹스중독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5(11). 341-364.
- 이수진(1997). 드러내기를 중심으로 본 동성애자의 정신건강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2003). “동성애 상담사례 분석 및 상담 전략”. 청소년의 고민: 내가 동성애자인가요?.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영식, 전창무, 김소연, 고복자(2005). 성주체성 문제 혹은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과 성 개방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6(2). 231-238.
-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3-145
- 이장현, 우룡(2001). 학교폭력의 최근동향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장재홍, 지승희, 이영선, 박정민, 이자영, 박성호(2003). “청소년의 동성애에 대한 생각 및 현황 분석.”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의 고민: 내가 동성애자인가요? 특수상담사례발표회 자료집.
- 조현진(1990). 우울, 자기비하 및 삶의 의미가 자살개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질병관리본부(2006). 2006년 3월말 에이즈 보도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학교폭력의 현황과 대책.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위원회(2006). 2005년도 청소년 유행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통계청(2006). 2006 청소년통계
- 한국에이즈퇴치연맹(2003). 전국민 성행태 및 에이즈 의식 연구
- 함인희(2003). “청소년 동성애를 향한 사회학적 성찰”.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의
고민: 내가 동성애자인가요? 특수상담사례발표회 자료집
- 허남순·오정수·홍순혜·김혜란·박은미·정익중(2005). 빈곤 아동과 삶의 질. 서울: 학지사.
- 허정은(2004).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 및 우울과 자살사고간의 관계. 서울
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홍의경(1999). 청소년의 자기수용과 자살생각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영(2003). 서울시 중학생의 에이즈 차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삼육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 Allport, G. W.(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 Wesley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1993). Homosexuality and adolescence. *Pediatrics*. 92.
631
- Badgett, L., Donnelly, C., & Kibbe, J.(1992). *Pervasive patterns of discrimination against
lesbians and gay men: Evidence from survey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
- Berzon, B.(1992). Telling the family you're gay. In B. Berzon(Ed.), *Positively gay*.
Berkeley, CA: Celestial Arts
- Bidwell, R. J.(1992).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n S. B. Friedman, M.
Fisher, & S. K. Schonberg(eds), *Comprehensive adolescent health care*. St. Louis,
MO: Quality Medical Publishing
- Boxer, A.(1990). *Life course transitions of gay and lesbian youth: Sexual identity
develop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Bradford, J. B & Ryan, C. C.(1987). *The national lesbian health care survey: Final
report*. Washington DC: National Lesbian and Gay Health Foundation
- Bradford, J., Ryan, C. & Rothblum, E. D.(1994). National lesbian health care survey: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care. *J Consult Clin Psychol*. 62. 228
- Brooks, V. R.(1981). *Minority stress and lesbian women*.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D. C. Health and Co.
- Cabaj, R. P.(1989). AIDS and chemical dependency: Special issues and treatment barriers

- for gay and bisexual men.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21. 387
- Cass, V. C.(1979). Homosexual identity formation: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Homosexuality*, 4.
- CDC(1995).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U.S. 1993*. MMWR 44:1
- CDCP(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1995). *HIV/AIDS surveillance report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Mid-year edition 7
- Coates, T. J., Faigle, M., & Stall, R. D.(1995). *Does HIV prevention work for men who have sex with men?* Report for the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UCSF, Center for AIDS Prevention Studies. February
- Coleman, E. & Remafedi, G. P.(1989). Gay, lesbian and bisexual adolescents: A critical challenge to counselors. *J Counsel Dev*. 68. 36
- Coleman, E.(1987). Developmental stages of the coming out process. In J. C. Gonsiorek (Ed), *Homosexuality and psychotherapy: A practitioner's handbook of affirmative models*, New York; Haworth.
- Comstock, G. (1991). *Violence against lesbians and gay men*.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Curtis, D. P., & Victor, K. G.(1994). Risk factors for suicide among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s. *Social Work*, 39(5).
- D'Augelli, A. R.(1991). Gay men in college: Identity processes and adaptation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2. 140-146
- D'Augelli, A. R.(1996). Lesbian, gay and bisexual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In R. P. Cabaj, & T. S. Stein(Eds.), *Textbook of Homosexuality and Mental Healt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D'Augelli, A. R., & Hershberger, S. L.(1993).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 in community settings: Personal challenges and mental health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 421
- Dean, L., Wu, S., & Martin, J. L.,(1992). Trends in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gay men in New York City: 1984 to 1990. In G. M. Herek, & K. T. Berill(Eds.), *Hate crimes; Confronting Violence against Lesbians and Gay Men*. Newsbury Park, CA: Sage
- Dignan, M. H.(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483.
- Elze, D. E.(2002). Risk factors for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mong gays,

- lesbian, and bisexual adolescents. *Social Work Research*. 26(2).
- Farrow, J. A., Deisher, R. W., & Brown, R.(1991). Introduction(Special issue on homeless and runaway youth). *Journal of Adolescence Health*. 12. 497
- Fountain J. H. Hammond N. L.(1996). Counseling issues with gay and lesbian adolescents. *Adolescence*, 31(124).
- Futterman, D., Hein, K., Kipke, M., et al.(1990). *HIV+ adolescent: HIV testing experiences and changes in risk-related sexual and drug use behavior*. Presented at the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DS. SF, CA, June
- Garfinkel, H.(1956). Conditions of successful degradation ceremon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1, 420-424.
- Garnets, L., & Kimmel, D.(1993). Lesbian and gay male dimensions in the psychological study of human diversity. In L. Garnets & D. Kimmel(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sbian and gay male experience*.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Garnets, L., Herek, G. & Levy, B.(1990). Violence and victimization of lesbians and gay men: Mental health consequenc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 366-383
- Gibson, P.(1989). Gay male and lesbian youth suicide. In M. R. Feinleib(Ed), *Report of the Secretary's Task Force on Youth Suicide*.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Goffman, E.(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Goldfried, M. R., & Goldfried, A. R.(2001). The important of parental support in the lives of lesbian, and bisexual individual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Session: Psychotherapy in practice*. 57. 681-693
- Gonsiorek, J.(1988). Mental health issues of gays and lesbi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Care*. 9. 114-122
- Haldeman, D. C.(1994). The practice and ethics of sexual orientation conversion therapy. *J Consult Clin Psychol*. 62. 221
- Harlow, L. L., Newcomb, M. D. & Bentler, P. M.(1986). Depression, self derogation, substance use, and suicide ideation: lack of purpose in life as a mediational fac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 5-21
- Harrison, T. W.(2003). Adolescent homosexuality and concerns regarding disclosure.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73(3).
- Hendriks, A., Tielman, R., & van der Veen, E. (1993). *The third pink book: A global*

- view of lesbian and gay liberation and oppression. Buffalo, NY: Prometheus
- Herd, G. & Boxer, A.(1996). *Children of horizons: How lesbian and gay teens are leading a new way out of the closet*. 2nd ed. Boston: Beacon Press
- Herek, G. M. & Berrill, K.(1992). *Hate crimes: Confronting violence against lesbians and gay me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Herek, G. M.(1991). Stigma, prejudice and violence against lesbians and gay men. In J. C. Gonsiorek & J. D. Weinrich(eds.). *Homosexuality: Research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Herek, G. M.(1993). Documenting prejudice against lesbians and gay men on campus: The Yale sexual orientation study. *Journal of Homosexuality*. 25. 18
- Herek, G.(1986). On heterosexual masculinity: Some psychical consequences of the social construction of gender and sexuali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9. 563-577
- Hershberger, S. L. & D'Augelli, A. R.(1995). The impact of victimization on the mental health and suicidality of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 *Developmental Psychol.* 31. 65
- Hetrick, E. S., & Martin, A. D.(1987). Developmental issues and their resolution for gay and lesbian adolescents. *Journal of Homosexuality*. 13. 25
- Hunt, M.(1974). *Sexual behavior in the 1970s*, Chicago: Playboy Press
- Hunter, J.(1992). Violence against lesbian and gay male youths. In G. M. Herek & K. T. Berrill(eds). *Hate crimes: Confronting violence against lesbians and gay me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Kaplan, G. A.(1985). Psychosocial aspects of chronic illness: Direct and indirect associations with ischemic heart disease mortality. In R. M. Kaplan & M. H. Criqui(eds.). *Behavioral epidemiology and disease prevention*. NY: Plenum
- Kennedy, M. B., Scarlett, M. I., Duerr, A. C., & Chu, S. Y.(1995). Assessing HIV risk among women who have sex with women: Scientific and communication issues. *Journal of Am Med Wom Assoc*. 50. 103
- Kinsey, A. C., Pomeroy, W. B., & Martin, C. E.(1948),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 WB. Saunders.
- Kourany, R. F. C.(1987). Suicide among homosexual adolescents. *Journal of Homosexuality*, 13(4).
- Krysial, G. I.(1987). A very silent and gay minority. *The School counselor*, 34(4), 304-307.

- Kulkin, H. S., Chauvi, E. A., & Percle, G. A.,(2000). Suicide among gay and lesbia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omosexuality*, 40(1).
- Lemp, G. F., Jones, M., Kellogg, T. A., et al.(1995). HIV seroprevalence and risk behaviors among lesbian and bisexual women in San Francisco and Berkeley, Californi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5. 1549
- MacKenzie, R. G. & Kipke, M. D.(1992). Substance use and abuse. In S. B. Friedman, M. Fisher, & S. K. Schonberg(eds): *Comprehensive Adolescent Health Care*. St Louise, MO: Quality Medical Publishing
- Malinsky, K. P.(1996). *Learning to be invisible: A qualitative study of lesbian students in Florida's public high school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arasota
- Mallon, G. P.(1994). The experience of gay and lesbian adolescents in New York City's child welfare system. In A. Siskind & F. Kunreuther(eds).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a joint task force of New York City's child welfare administration and the council of family and child caring agencies*. New York
- Mallon, G. P.(1998), *Foundation of social work practice with lesbian and gay persons*, NY: The Harrington Park Press.
- Marcus, E.(2000). *키밍아웃*. 컴투게더 역. 박영출판사
- Martin, A. D., & Hetrick, E. S.(1988). The stigmatization of the gay and lesbian adolescent. *Journal of Homosexuality*. 15. 163
- Masters, W., Johnson, V., & Kolodny, R.(1994). *Heterosexuality*. NY: Harper Collins
- McKirnan, D. J. & Peterson, P. L.(1989). Psychosocial and cultural factors in alcohol and drug abuse: An analysis of a homosexual community. *Addict. Behav.* 14. 545
- Meyer, I. H.(1995). Minority stress and mental health in gay me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38-56
- Moses, A. E., & Hawkins, R. O.(1982). Removing the stigma: Fifteen years of progress. *American Psychologist*. 46(9).
- NASW(1999). *사회복지대백과사전*. 나눔의 집
- Novello, A. C.(1988). *Report of the secretary's work group on pediatric HIV infection and diseas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Office of National AIDS Policy(1996). *Youth & AIDS: An American Agenda. Report to the President*. Washington, DC.
-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 Owens, R. E.(1998). *Queer Kids; The Challenges and Promise for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 NY: The Harrington Park Press.
- Pilkington, N. W. & D'Augelli, A.(1995). Victimization of lesbian, gay, bisexual youth in community setting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 34
- Pilz, G. A.(1989). Aggression/Gewalt in sport. In H. Haag. u. a. (Ed.), *Theorie und Themenfelder der Sportwissenschaft*. 326-344. Schorndorf
- Proctor, C. D., & Groze, V. K.(1994). Risk factors for suicide among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s. *Social Work*. 39(5)
- Remafedi, G.(1987). Adolescent homosexuality: Psychosocial and medical implications. *Pediatrics*. Vol.(79), 331-337.
- Remafedi, G.(1988). Preventing the sexual transmission of AID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Care*. 9. 139
- Remafedi, G., Farrow, J. A., & Deisher, R. W.(1991). Risk factors for attempted suicide in gay and bisexual youth. *Pediatrics*. 87. 869
- Remafedi, G., Resnick, M., Blum, R., & Harris, L.(1991). Demography of sexual orientation in adolescents. *Pediatrics*. 89. 714
- Rofes, E. E.(1983). *I thought people like that killed themselves; Lesbians, Gay Men, and Suicide*. San Francisco: Gray Fox Press.
- Rofes, E. E.(1989). Opening up the classroom closet: Responding to the educational needs of gay and lesbian youth. *Harv Educ Rev*. 59. 444
- Rosario, M., Meyer-Bahlburg, H., Hunter, J., et al.(1994). *The psychosexual development of urban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s: Sexual orientation, identity, activity and practices*. Paper presented at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Biopsychosocial Aspects of HIV Infection. Brighton, UK. July
- Rosario, M., Rotheram-Borus, M. J. & Reid, H.(1994). Gay-related stress and its correlates among gay and bisexual male adolescents of predominantly black and hispanic background. *J Comm Psychol*. 24. 13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P. S., Biggar, R. J., & Goedert, J. J.(1994). Declining age at HIV infection in the United States. *N Eng J Med*. 330. 789
- Ross, M.(1989). Gay youth in four subculture: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Homosexuality. 17. 299-314

- Rothblum, E.(1994). "I only read about myself on bathroom walls":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mental health of lesbian and gay men.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62. 213-220
- Russell, S. T., & Joyner, K.(2001). Adolescent sexual orientation and suicide risk: Evidence from a national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91(8). 1276-1281
- Ryan, C., & Futterman, D.(1998). *Lesbian and gay youth*.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Savin-Williams, R. C.(1990). Gay and lesbian adolescents. in F. W. Bozett, & M. B. Sussman(Eds.). *Homosexuality and Family Relations*. Binghamton, NY: The Harrington Park Press
- Savin-Williams, R. C., & Lenhart, R. E.(1990). AIDS prevention among gay and lesbian youth: Psychosocial stress and health care intervention guidelines. in D. G. Ostrow(Ed.). *Behavioral Aspects of AIDS*. NY: Plenum Publishing
- Savin-Williams, R.(1994). Verbal and physical abuse as stressors in the lives of lesbian, gay male, and bisexual youths: Association with school problems, running away, substance abuse, prostitution, and suicide.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62. 261-269
- Schneider, M. & Tremble, B.(1986). Gay or straight? Working with the confused adolescent. *Journal of Social Work and Human Sexuality*. 4. 71
- Schneider, S. G., Farberow, N. L., & Kruks, G. N.(1989). Suicidal behavior in adolescent and young adult gay men. *Suicidal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9. 381
- Sears, J(1991). Educators, homosexuality and homosexual students: Are personal feelings related to professional beliefs? *Journal of Homosexuality*. 22. 29
- Shibutani, T.(1961). *Society and Personality: An Interactionist Approach to Social Psychology*. NJ: Prentice Hall.
- Singer, E., & Deschamps, D.(1994). *Gay and lesbian stats*(Eds.). NY: The New Press
- Somjaree Pikulthong(2002). 한국동성애 및 한국인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Sturdevant, M., & Remafedi, G.(1992). *Special health needs of homosexual youth*. *Adolescent Medicine: State of the Art Reviews*. Philadelphia: Hanley & Belfus
- Telljohann, S. K. & Price, J. H.(1993). A qualitative examination of adolescent

- homosexuals' life experiences: Ramifications for secondary school personnel.
Journal of Homosexuality. 26. 41
- Theunert, H.(1987). Gewalt inden Medien - Gewalt in der realitat. Leverkusen
- Troiden, R. R.(1988). Homosexual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Care*, 9.
- Troiden, R. R.(1989). The formation of homosexual identities. In *Gay and Lesbian Youth*,
NY: The Harrington Park Press
- UNAIDS/UNICEF(2002). *Young people and HIV/AIDS*. Opportunity in crisis
- Woods, J.(1993). *The corporate closet: The professional lives of gay men in America*.
NY: The Free Press



부 록

청소년 동성애자의 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산하의 한국청소년개발원은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에 관한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 성적 소수자의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경험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지 결과는 차후 청소년 성적 소수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에만 활용이 되며,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 조사에서 여러분이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엄격히 보호를 받을 것이므로 편안하게 평소 느낀대로 솔직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가급적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기관: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자: 강병철 (삼육보건대학 보건사회복지과 교수, kangbc@snhc.ac.kr)

김지혜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jihyekim@daejin.ac.kr)

6. 당신이 처음으로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수치스럽게 느껴졌으며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② 약간 수치스러움을 느꼈으며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③ 별로 수치스럽지 않았으며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었다.
 ④ 전혀 수치스럽지 않았으며 쉽게 인정할 수 있었다.
7. 당신은 현재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 ① 매우 편안하게 느낀다 ② 편안하게 느끼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편하게 느끼는 편이다 ⑤ 매우 불편하게 느낀다
8. 당신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하여 프라이드(자긍심)를 느끼고 계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9. 당신은 자신의 성정체성이 앞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분명히 변할 것이다. ② 아마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③ 아마 변하지 않을 것이다. ④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10. 당신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누구에게 알리셨습니까? 알린 후 상대방이 보인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보기			
아버지	(×)	1-2-3-4-5-6-7-8-9	()
어머니	(○)	1-2-3-4-5-6-7-8-9	(3)

- | | 커밍아웃
여부 | 전적으로
거부 | 전적으로
수용 |
|-------------------------|------------|-------------------------|------------|
| (1)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 | | | |
| (2) 아버지 () | | 1-2-3-4-5-6-7-8-9 () | |
| (3) 어머니 () | | 1-2-3-4-5-6-7-8-9 () | |

- (4) 형제나 자매 () 1-2-3-4-5-6-7-8-9 ()
- (5) 친척 () 1-2-3-4-5-6-7-8-9 ()
- (6) 동성애자 친구 () 1-2-3-4-5-6-7-8-9 ()
- (7) 이성애자 친구 () 1-2-3-4-5-6-7-8-9 ()
- (8) 교사 () 1-2-3-4-5-6-7-8-9 ()
- (9) 상담가 () 1-2-3-4-5-6-7-8-9 ()

11. 당신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털어놓고 의논하십니까?

- | | | 전혀
아니다 | 보통
정도 | 매우
그렇다 |
|-------------|-----|---------------------------------------|----------|-----------|
| (1) 아버지 | () | 0-----1-----2-----3-----4-----5-----6 | | |
| (2) 어머니 | () | 0-----1-----2-----3-----4-----5-----6 | | |
| (3) 형제 및 자매 | () | 0-----1-----2-----3-----4-----5-----6 | | |
| (4) 친척 | () | 0-----1-----2-----3-----4-----5-----6 | | |
| (5) 동성애자 친구 | () | 0-----1-----2-----3-----4-----5-----6 | | |
| (6) 이성애자 친구 | () | 0-----1-----2-----3-----4-----5-----6 | | |
| (7) 교사 | () | 0-----1-----2-----3-----4-----5-----6 | | |
| (8) 상담가 | () | 0-----1-----2-----3-----4-----5-----6 | | |

12. 당신은 성정체성과 관련된 고민으로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7번으로)

13.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상담을 하셨습니까?

- ① 담임교사 ② 상담교사 ③ 전문상담기관 방문
- ④ 인터넷 상담 ⑤ 기타 ()

14. 상담내용은 주로 무엇에 관해서였습니까?

- ①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 ② 커밍아웃과 관련된 고민
- ③ 성정체성으로 인한 주위와의 갈등 ④ 동성친구와의 관계적 문제

23. 참여하고 계시다면 오프라인 모임(정모)에는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② 가끔 참여함
 ③ 1번 정도 참여해 본 적 있음 ④ 오프라인 모임에는 참여한 적 없음
24. 당신은 동성과 교제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6번으로)
25. 교제해 본 적이 있다면 몇 명 정도이며, 평균 교제기간은 어떠했습니까?
 () 명 정도, 평균 ()개월
26. 당신은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9번으로)
27. 당신이 처음으로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언제입니까? 만 () 세
28. 당신은 성관계시 **Safe Sex**(콘돔사용)를 하십니까?
 ① 항상 한다 ② 대부분 한다 ③ 가끔 한다 ④ 전혀 하지 않는다
29. 당신은 **AIDS**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0. 당신은 동성애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부정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긍정적인 편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31.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당신 스스로의 성적체성에 대한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② 약간 영향을 미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문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다음 문항들은 우리가 때때로 겪는 문제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자신이 지난 7일 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평가해 보십시오. 그런 후에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 대답을 골라 √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1. 성욕이 감퇴되었다.					
2.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3.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4. 울기를 잘한다.					
5.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든다.					
6. 자책을 잘한다.					
7. 외롭다.					
8. 기분이 울적하다.					
9. 매사에 걱정이 많다.					
10.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11. 장래가 희망 없는 것 같다.					
12. 매사가 힘들다.					
13. 허무한 느낌이 든다.					

※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항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를 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2. 학교생활이 즐겁다.				
3. 내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4. 담임선생님이 좋다.				
5.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다.				
6.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존경한다.				
7. 수업시간에 나는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한다.				
8. 내게 있어 학교 성적은 참으로 중요하다.				
9. 나는 공부에는 취미가 없다.				
10. 나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편이다.				
11. 나는 수업시 학업태도가 좋은 편이다.				
12. 나의 학교성적은 좋은 편이다.				
13. 숙제는 내 스스로 힘으로 꼬박꼬박 해가는 편이다.				
14.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				
15. 학교의 규범을 준수한다.				
16. 다른 학생들과 싸우거나 다툰 적이 있다.				
17. 시험 볼 때 커닝을 한 적이 있다.				
18. 학교에 지각을 한다.				
19. 학교생활에서 근신, 정학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20. 무단결석을 한다.				
21. 나는 학교 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망가뜨린 적이 있다.				
22. 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무단이탈한 적이 있다.				

※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문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의 나 자신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다.				
2. 내가 해놓은 일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 우리 집안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4. 나는 현재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5.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후회할 것들이 많다.				
6.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 하는 존재이다.				
7. 나는 믿을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8.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9.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 여러분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거나 추측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횟수에 해당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한번도 없다	한번	두 번	세 번 이상
1. 욕설 등의 언어적 모욕을 당한 적이 있다.				
2.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3. 개인 소지품이 망가지거나 파괴된 적이 있다.				
4. 누군가에 의해 미행이나 추적을 당한 적이 있다.				
5. 누군가가 나에게 침을 뱉었다.				
6. 누군가가 물건을 집어던졌다.				
7. 주먹질이나 발길질 등의 신체적인 구타를 당했다.				
8.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				
9. 무기로 공격을 당했다.				

※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맞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전혀
적이지 않다 | 해본
적이지 않다 | 거의 해본
적이지 않다 | 가끔
해봤다 | 종종
해봤다 | 자주
해봤다 |
|-------------------------|--------------|--------------|-----------------|-----------|-----------|-----------|
| 1. 나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 1----- | 2----- | 3----- | 4----- | 5----- | |
| 2. 최근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 1----- | 2----- | 3----- | 4----- | 5----- | |
| 3. 누군가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 1----- | 2----- | 3----- | 4----- | 5----- | |
| 4. 내 삶이 자살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 1----- | 2----- | 3----- | 4----- | 5----- | |
| 5. 자살하려는 시도를 | 1----- | 2----- | 3----- | 4----- | 5----- | |

※ 다음은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중요한 타인과 같은 사회 지지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마다 해당하는 곳에 ✓로 표시를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위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					
2.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3. 나의 가족은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4. 나의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인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					
5.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다.					
6. 나의 친구들은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7. 일이 잘못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8. 나의 문제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9.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다.					
10. 나의 감정에 대해서 보살피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11. 나의 가족은 기꺼이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와주려고 한다.					
12. 나의 문제에 대해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 다음의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을 괄호 안에 적어 주십시오.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당신의 나이는 만 몇 세입니까? 만 () 세

3. 당신의 현재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중학교 재학 중 ② 중학교 중퇴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재학 중
 ⑤ 고등학교 중퇴 ⑥ 고등학교 졸업 ⑦ 대학교 재학중 ⑧ 기타

4. 당신은 학교에서 자퇴 혹은 퇴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당신의 평소 학업성적은 어떠합니까?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6.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가톨릭 ③ 불교 ④ 기타 () ⑤ 없음

7. 당신은 술을 드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0번으로)

8. 드신다면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3회 정도 ③ 일주일에 1회 정도
 ④ 1달에 2-3번 정도 ⑤ 1달에 1번 정도

9. 드실 때 대개 한번에 얼마나 드십니까?()
 ① 소주 1-2잔(또는 맥주 1병 이하) ② 소주 3-4잔(또는 맥주 2병, 양주 3잔)
 ③ 소주 5잔(또는 맥주 3병, 양주 5잔) ④ 소주 1병(또는 맥주 4병, 양주 6잔)
 ⑤ 소주 2병(또는 맥주 8병, 양주 12잔) ⑥ 소주 3병(또는 맥주 12병) 이상

10. 당신은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번으로)

11. 피우신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 피우십니까?

- ① 하루에 1갑 이상 ② 하루에 1갑 정도 ③ 2-3일에 1갑 정도
④ 일주일에 1갑 정도 ⑤ 2주일에 1갑 정도 ⑥ 한달에 1갑 정도

12. 당신은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가족(부모나 형제자매)과 함께 ② 친구와 함께 자취 또는 하숙
③ 혼자서 자취 또는 하숙 ④ 기숙사에 거주 ⑤ 기타

13. 당신은 가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4. 당신은 실제로 가출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6번으로)

15. 가출의 이유가 성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6. 당신의 부모님의 결혼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기혼 ② 별거 ③ 이혼 ④ 사별 ⑤ 재혼 ⑥ 기타 ()

17. 다음 보기 중 당신의 부모님의 교육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십시오.

(1) 아버지의 교육정도 () (2) 어머니의 교육정도 ()

- | | |
|----------------|-----------------|
| ① 무학 | ② 초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
| ③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 ④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
| ⑤ 대학교 중퇴 또는 졸업 | ⑥ 대학원 이상 |

18. 다음 보기 중 당신의 부모님의 직업을 고르십시오.

(1) 아버지의 직업 () (2) 어머니의 직업 ()

- | | |
|---|----------------|
| ① 입법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 ② 전문가 |
| ③ 기술공 및 준 전문가 (기술공, 의료보조원, 학습교사, 부동산중개인, 보험대리인, 운동선수 등) | |
| ④ 사무 종사자 | ⑤ 서비스 종사자 |
| ⑥ 판매 종사자 | ⑦ 농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
| ⑧ 기능원 | |
| ⑨ 기계 조작/조립 종사자(운전사, 승무원 등) | |
| ⑩ 단순 노무 종사자 (배달원, 노점상, 관리인, 미화원 부업 등) | |
| ⑪ 군인 | ⑫ 무직 |
| ⑬ 주부 | ⑭ 기타 |

19. 당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지금까지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기타 의견이나 제언사항이 있으면 공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한채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대표

정 올 동성애자인권연대 · 대표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6-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V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김기현
06-R01-1 청소년의 선호직업 및 직업가치 특성에 관한 연구 / 이경상·강영배
06-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현·유성렬
06-R01-3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응답패턴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현·민수홍
06-R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 : 결과부분 측정 지표 검증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
06-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I :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
06-R03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양계민·오승근·권두승·전명기·조대연
06-R04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
06-R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 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성택·전성민
06-R05-1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용교·천정웅·안경순
06-R05-2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 황옥경·정준미
06-R05-3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중섭·박해석
06-R05-4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 강현아
06-R06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비교연구 / 오해섭·De-Ping Lu·Kazuhiko Fuwa
06-R07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 성운숙·박한우
06-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국내외 청소년 정보화 정책연구 / 이혜연·조정문·김아미
06-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청소년의 온라인 생활과 학업적응 현황 / 장근영·남주희
06-R09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 윤철경·조흥식·김향초·이규미·우정자
06-R10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 김경준·김지혜·류명화·정익중
06-R11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서정아·권해수·정찬석·김귀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김은정·손승영·이기재·박현주 (자체번호 06-R1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 장혜경 · 홍승아 · 김혜영 (자체번호 06-R12-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와타나베
히데끼 · 마츠다 시게끼 · 무꾸오 아사코 · 배지혜 (자체번호 06-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김재은 ·
김상학 (자체번호 06-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서병문 ·
안드레아스헤네커 · 제스퍼 코글린 (자체번호 06-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최연혁 ·
피터 스트랜브링크 (자체번호 06-R12-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이춘화 · 윤옥경 · 조아미
(자체번호 06-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2 가정 ·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은경 ·
홍영오 (자체번호 06-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3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영지 · 방은령 ·
박정선 (자체번호 06-R13-2)

■ 수시과제

- 06-R14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 김기현 · 이경상
- 06-R15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 강병철 · 김지혜
- 06-R16 중국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과 적응실태연구 / 김익기
- 06-R1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인간관계: 이동전화와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 / 류춘렬
- 06-R1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환경 모델개발 / 김호순 · 황진구 · 한도희 · 김종훈
- 06-R19 청소년 법의식 평가척도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신동준
- 06-R20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 고숙희 · 김영희 · 서동희
- 06-R21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 / 김현철
- 06-R2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최인재

■ ISSUE PAPER

- 06-IP0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 / 김영호
- 06-IP02 외국의 청소년근로보호정책 연구 -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을 중심으로 / 김문섭
- 06-IP03 한국 청소년의 젠더 차이와 성차별 : 현황과 과제 / 손승영
- 06-IP04 사이버 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 윤리지수 개발 · 평가 / 김성벽
- 06-IP05 청소년의 휴대전화 문제행동 현황과 과제 / 성윤숙

■ 영역과제

- 06-R2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방안 연구 / 최창욱 · 조혜영
- 06-R26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 성운숙 · 이혜연 · 이창호
- 06-R27 제10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 김경준 · 이춘화 · 김귀랑
- 06-R28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1차) 평가 / 김현철 · 백해정
- 06-R29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2차) 평가 / 김현철 · 백해정
- 06-R30 청소년 문화갈등 분석 및 세대간 문화소통 방안 / 박영균 · 박영신 · 김의철
- 06-R31 2006년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임지연
- 06-R32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김영지
- 06-R33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모형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 / 오해섭 · 이민희
- 06-R34 2006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연구 / 김은정
- 06-R35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이민희 · 오해섭 · 이장현 · 신순갑
- 06-R36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연구 / 이춘화 · 서정아
- 06-R37 2006년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 이민희 · 김경준 · 최창욱 · 황진구 · 성운숙 · 오승근 · 양계민
- 06-R38 2006년 청소년 백서 / 김현철 · 김기현
- 06-R39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영역사업(과제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 김기현 · 임지연
- 06-R40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 김기현 · 장근영
- 06-R41 청소년활동 참가 실태조사 연구 / 장근영 · 김기현
- 06-R42 제1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 김경준 · 이춘화 · 김귀랑
- 06-R43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 윤철경 · 김경준 · 박병식 · 정익중
- 06-R44 청소년행복 · 역량 지수 개발연구 / 김신영 · 이경상 · 백해정
- 06-R45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연구 / 임지연 · 김신영 · 김기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6-S01 「위기청소년 지역사회보호 현황진단 및 발전방안」 (6.17)
- 06-S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연구 workshop : 결과 부문 지표의 이론적/경험적 타당도 검증」 (6.21)
- 06-S03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중간발표 워크숍」 (6.23)
- 06-S04 「주요선진국의 가족정책 특성과 한국의 정책과제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협동연구기관 중간발표 워크숍 (6.29)
- 06-S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7.7~8)
- 06-S06 「청소년의 가족내 사회화과정 -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 5개국 비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8.2~5)

- 06-S07 「청소년 유형별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8.14)
06-S08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8.17)
06-S09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 한국·중국·일본 3개국 비교」 (8.18)
06-S10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9.6~9.8)
06-S11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8.22)
06-S12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현황 및 발전방안」 (9.9)
06-S13 「청소년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최종발표 워크숍」 (10.10)
06-S14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최종발표 워크숍」 (10.19)
06-S15 「청소년과 미디어」 (11.10)
06-S16 「한국청소년행복지수」 (11.15)
06-S17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24)
06-S18 「청소년 활동관련 정책과 뉴 패러다임」 (12.6)
06-S19 「경영목표 · 혁신 직원 워크숍 및 청소년정책개발 · 연구를 위한 산 · 학 · 연 정책협의회」
(12.14~12.16)

■ 연구수행 자료집

- 06-M01 2005 연구보고서 요약집 / 연구기획팀
06-M02 2006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6-M03 2006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 연구기획팀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1호 (통권 제43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2호 (통권 제44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보고 06-R15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인 쇄 2006년 12월 7일

발 행 2006년 12월 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크리홍보(주) 전화 (02)737-537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제·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634-2